朝鮮日報
夕刊
六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 라인河一帶大緊張

## 佛、國境要塞를强化

## 獨、機械化部隊續續集結

【巴里五日發同盟】 뉴른베르히의 나치스黨大會를 압두고 全歐羅巴가 異常한 緊張을 보이고잇는 이때에 五日佛蘭西政府는 一部豫備兵에게 召集命令을 發하고 國境要塞의 人員을 最大限度로 充實함과 함께 休暇中의 全將兵에 對하야 直時原隊로 歸還할것을 命令하엿다 이것은 險惡한 國際情勢에 鑑하야 獨逸側이 이미 國境方面에 兵力을 增强함에 對抗하기爲한것으로解釋되나 官邊에서는今回政府가取한 處置는不穩의事態에備코저 함이요 豫防的行爲에不過하다 체코의國內情事態가얼마간好轉한現在에 아무도러운일도 업다고하고잇다 一方國境스트라스불市로부터의報道에依하면 獨逸側은 二日來라인右岸의칼르스오헨부르히地方에 續續機械化部隊를集結하고잇스며 砲兵隊重機關銃隊等이 連大來着하고잇다한다 라인河一帶는 方今異常히 緊張된空氣로 덥혀잇다

【倫敦五日發同盟】 駐英佛國大使코방氏는 英國外務省에 出頭 獨逸軍의 移動에 備하야 佛政府는 機宜의 處置를 講할것을 通告하엿다 여기對하야 英佛提携의 見地로부터 英國側도 萬一의 事態에 備하야 무슨 豫防的 處置를 取하지나 안는가하고보고잇다

# 나치스黨大會開幕

## 各國大公使도列席

### 初日은興奮과感謝裡閉會

【뉴른베르히五日發同盟】 第十回나치스黨大會에 出席코저 五日午前十一時 뮌헨市로부터 뉴른베르히市에 到着한 히틀러總統은 一日宿舍인 호텔에 들어갓다가 午後四時 全市의 鐘이 嚴肅히 全國黨大會開催를 告하자 黨國首腦를 거느리고 沿道市民의 歡迎에 答하면서 市歡迎場인 市會議事堂으로 드러갓다 議事黨大廣間에서 히틀러總統은 헤스副總統을 始하야 黨政府、軍部、突擊隊、親衛隊、勞働奉仕團等首腦와 東鄕大使를비롯하야 各國大公使를招待하고 恒例의 大레셉순을 開催, 席上히틀러總統은 司會長 리베르市長의 歡迎辭에 答하야 大獨逸國의 偉大와 力의 表象인 古都 뉴른베르히의 歷史的役割을 稱頌하는旨의 簡單한 答辭를 述하고 레셉순을 마치나 一同은 市歌劇場에서 『뉴른베르히의 歌手』의 記念上演을 觀劇, 明六日의 開會式을 압두고 昂奮과 感謝裡에 뉴른베르히의 第一夜를 보내다

【뉴른베르히五日發同盟】 第十回나치스黨全國大會는 全世界의 視聽을 모으면서 드디여 六日부터 一週間 뉴른베르히에서 開催되엿는바 히틀러總統은 同大會에 出席키爲하야 黨國首腦를 따라 五日午前十一時 뮌헨市로부터 特別列車로 뉴른베르히에 到着햇다 總統은 뉴른베르히驛頭에서 헤스副總統 市長以下 各首腦의 出迎을 밧고 總統親衛隊를 檢閱

# 時局對策調査會今日開幕

戰時體制下의 諸般施策을 調査審議하야 非常時國策을 確立하고자 組織한 時局對策調査會는 豫定과如히 六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大野會長以下 百一名委員中八十九名 委員이 出席하야 委員總會를 開催하얏다 此會合은 時局을 中心으로한 政治、經濟、敎育其他當面의 諸問題를 再檢討하야 現下實情에 適應한施策을 樹한後 此를 明春早朝부터 實施에 着手하라는것이어 內鮮滿等 內外各地로부터 斯界權威가 一堂에 參集하야 國策을 討議하는만치 會議는 頗히 重要하고도 緊張하다 同會議席上에서 南總督은 現下朝鮮의 諸般의 實情을 擧하야 左와如한 一場의 告辭를 述한後 大野會長이 登壇하야 議長 立場으로서 議事其他에 對하야 人事를 述하엿는바 各委員으로부터 總括的意見의 披露가 잇섯다

# 大陸政策兵站基地

# 重大使命을强調

## 日滿支權威九十餘人士가會合席上에

## ─南總督滔滔時餘의告辭

### 總督告辭

今回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를 設置함에當하야 各位는때마츰 繁多함에도不拘하고 邦家를爲하야 萬障을排하고 그委員인것을 受諾하신것은 本職의 欣幸으로 生覺하는바로서 特히遠隔의地로부터 來會하신各位의勞에對하야 기리感謝의意를表하는바이다

支那事變은 이미年餘를 經過하고 此間將兵에 對하야第三國의 凡有支援이合에 不拘하고 皇軍의 武威는抗日政權及黨軍을 制壓하야 今日에보는것과如한 偉大한 戰果를收하고 또近者에는 我國境地方의 蘇聯軍의 不當한 侵犯을擊手一擧하야 國威를中外에 發揚한것은大稜威下 皇軍將兵의 至誠盡忠의 勳하는바로 玆에開會劈頭에서 各位와함께皇軍의 勞苦에感謝하고 併하야 殉國의英靈에기리 敬悼의 意를表하는것이다

朝鮮總督府에서는 滿洲事變以後의 朝鮮經濟의 新動向에 對하야 將來를律할 方針을 檢討하기爲하야 一昨昭和十一年秋各方面의 權威者를 煩하야 朝鮮産業經濟調査會를 開催하고 今回御參加의 各位中에도 多數그委員으로서 熱心한 討議를하엿다 그리고 其答申事項은 施政上 參考資料로서 有用한 貢獻을 하고잇는데 昨年支那事變의 勃發함에及하야 東亞의政局及經濟事情은 俄然激變을 逐함에至하야 帝國의大陸政策上 前進兵站基地인 朝鮮의使命도 擴充한部門에 亘하야 深大를加하엿슴으로써 更히檢討를 要할段階에 到達하엿다

曠古未曾有의 規模에 發展한 現事變은 昨夏蘆溝橋事件突發直後吾人의 豫想한바와如히 일월히非常時局의 恒久性을 立證하고잇다 即抗日政權絶滅을 爲한 持久戰과 新支那確立의 長期建設과에 直面한것은勿論、赤化의 共同防衛其他第三國의 攪亂策을 排하야 我東亞新秩序을 實現하는 過程에서 起할수잇는 困難且重大한 事態에善處치안으면안된다 이때문에 帝國의大陸前進基地로서의 朝鮮의今後採擇할 施策의 大綱을 決하는에 愼重한 用意를 加할必要를認하고 本調査會를 設置하야 朝野多數權威者의 所見을 聽하야 剴切한 答申을 得하야써 國策擔當의 任務에遺憾업기를 期하고저 生覺한다

惟惊하압께도 天皇陛下께옵서는 지난 七月七日事變一周年에 際하야 優渥하옵신 勅語를 賜하와 今事變의 目的達成을 爲하야 益益 國家의總力을 擧할所以를 昭示하옵신것은 恐懼感激으로서 恐懼하야 마지안는바이다

世界大戰을 契機로한 近代戰의本質은 國力綜合戰이고 國家의모든힘을 綜合하야 國防의目的에 集中함에잇다 그리고 國防力의 根柢가되는것은 國民의 精神力과 經濟力의 合作이다 그러나 此二方은 畢竟人的、物的의兩要素에 歸할수잇는것으로 此兩要素에對하야 一貫無碍의政治力을 滲透식혀 써 總動員의效果를擧함에 戰時體制의 完璧을 期할수잇다고 信한다

事變以來 半島에서는 國民精神總動員及 物資總動員의 兩者함께 그時期、그方法에잇서 大體中央政府의 方針에 順應하고 戰時體制의 强化를志하야 今日에至한것인데 同題目下에 行한 施設又는 運動이다고할지라도 그效果를 的確하게함에는 半島特有의 實情에即하야 하지안으면 안될것은 勿論、今後半島로서 有할바 모든可能力을 振起하야 國家總力의 構成에 貢獻을 期함에 特히 此用意를 必要로한다

玆에 施政의立場으로부터 時局下의 半島諸動向과 이에對한 所見의一端을 概言하야 參考에 供하고저한다

第一人的、精神的方面에 對하야보건대 過去一年間의 人心動向은 皇國臣民으로서의 赤誠의 流露에잇서 極히 顯著한것이다 本職은 就任以來 歷代當局의苦心을 繼承하야 政績의 濟美에 努力하고 特히 國體觀念의 明徵으로써 施政의 第一要目에揭하야 半島同胞로하여금 名實共히 忠良한 皇國臣民이되게함에 最大의努力을 傾注하고잇는바 今次事變의 現實的으로 實來한新戰과 敎訓과는 滿洲事變을明로하야 好轉하여온 半島人心에 異常한感銘을 喚起하야 이미 識者의 周知함과如히 內鮮一體의 觀念에基하야 愛國의赤誠으로되여 널리發表하엿다 朝鮮施政의 一劃期를 意味하는 朝鮮人志願兵及普通敎育의 內鮮人區別撤廢의 一制度는 如斯한 時運의背景下에 實現한것이다 그러나 內鮮一體를 深化시키고 半島同胞가 名實共히 皇國臣民인實質을 具備함에는 到底히今日의程度로써 滿足할것은 勿論이다 今次事變 東亞民族의 大團結에依하야 『東洋人의東洋』을 建設하야 同文同種 數億民生의 福祉增進과文化興隆을 圖하고 이로써 我皇國의精神인 八紘一宇의 具現에 邁進하는것이다 그리고 그成道의途上 或은 日滿關係의協調、或은 日支關係의協調等 各各歷史와 環境에依하야 其樣式을다르게하고잇스나 『內鮮一體』의顯現은 我崇高無比한 皇道原理의 具體化로서 兩族의民族에 對한 道義的要請인것을 實踐하는것으로 生覺한다 朝鮮統治의 目標와 實踐과는 我東亞經綸上에實로 巨大한意義를 가지는것이다 故로 朝鮮統治의根本 是를 다하면 이것이 即 肇國의 大理想인 八紘一宇의 皇猷에 適한것으로서 內에 一視同仁의 聖旨를 奉戴하고 內鮮一體를 具現하며 外에 即 滿洲 支那는 勿論 延하야는 世界에 我道義를 國의 大精神을 恢弘하는 所以가된다

然이나 世間往往히 日本獨特의 本領을 解하지안코 外國植民政策의 槪念을 以하야 朝鮮統治를 論하고저 하는사람이 업지안흔者이다 此와如한것은 기괴生覺하지 안는者이다 元來 朝鮮統治의 根本義는 一視同仁의 聖旨를 奉體하는 道義政治로서外國의 其本國의 利益을 主體로하는 搾取政策과는 其根本理念에서 出發點을 다르게하는것이다 朝鮮統治가 如何히 私心이업시 道義的인것은 全혀 世界에 類例업는 事實으로서 最近朝鮮을 視察한 外人等이 從來의 彼等의 認識誤謬를 率直히 是正하고잇는것은 모다 例外가업다 例하면 過般 伊太利經濟使節團 來鮮의際 其代表的의一團員이 『自己는 朝鮮을보고 비로서 眞實의日本을 認識하엿다 今日의日本、明日의日本을 知함에는 于先 朝鮮을 보는것만 갓지못하다』 라고 말하는것파가트는 또 滿洲事變當時 리트調査團의 一委員이 『日本이萬若 朝鮮統治의 實績을 좀더 詳細히 世界에 諒解시키고 잇섯드면 滿洲事變에對한 列國의認識을 一變시킬수 잇섯슬것이다』 라고말하는것가튼것은 모다돌엿는外人이朝鮮統治의特殊한意義를 보고간것을 지적할것이며 此點에 關하야는 于先內鮮人 스스로의 深甚한省察을 必要로한다 『朝鮮統治의眞諦를 理解치안코 大陸問題를 말할資格이업다』라는것은 本職이 구디信하는바이다 吾人은內鮮人雙方의 自覺增進에依하야 此精神을更히 기리徹底시키고 內鮮一體를말할 必要조차업는境地에 進하지안으면 안된다 그리고 其時機는 이미 熟하고 其方法亦決코 적은것을 嘆하지안는바이다

此思想 精神에서본 人的要素의改善向上은 半島의 廣義國防又는產業經濟를 考察하는때의基本條件이 되는것임으로 各位는 기리關心하야 關係된 各方面에잇서 考慮하야주기를바란다

第二로物的 經濟的要素에 對하야 보면 時局下에서 示唆를 要하는바 亦是 極히크다

八紘一宇의精神에基하야 今次聖戰의 悠遠하고 偉大한 目的達成을爲하야 帝國이 直擔할前途의事態를 想察하면 更히 큰戰時態勢를 不可避하게하는 境遇에도 或은大陸의 長期建設遂行에도 一層廣汎且鞏固한 物的資源의充實을 急務로한다 大陸前進兵站基地인半島의 使命에 鑑하야 此等의事端에 備하야 遺憾업기를 期하는計畫의 徹底的强化를圖함이緊要한것은勿論이다

此見地에서 考察하건대 于先帝國의 戰時經濟에잇서서 國民食糧의 自給自足의 安全感의由來와 半島와關係는 密接不離의 關係에잇는데로 更히 廣義國防에即하야 日滿支經濟『블럭』上에占하는 半島의 職能을 考察하면 農、林、水産等食糧及原料生産의 部門에잇서서 農山漁民의 福祉增進과 相俟하야 此等資源의培養 增殖을 最高限度에 企圖하는方途가 此際充分히 再檢討되여야한다

又工、鑛業의 擴充增産에 對하야 考察하건데 半島今後의使命은 更히 一層크다 半島의地理的 資源的 國防的 人的諸條件을綜合하고 或은 帝國의 前進兵站基地로서 或은 支那의經濟開發에對한 協力의 任務에서 此處에 內地産業의 大陸進出의 足場으로서 一淵叢을 形造함은 必然的歸趨로서 多數識者가 夙히 痛感하는바이다 內地産業의大陸進出足場인것은 一面에는 內鮮一體深化를 爲하야 內地人의半島移住를 誘導하고 一面에는立體戰時代의 國防的見地에서 當然의 歸結이다 이에 依하야重工業、精密機械工業等의 高度産業을 半島에 興하야 國內産業構成의 地理的分布狀態를大乘的國策의 線에 沿하게하는必要를 느낀다 過去오래동안 主로內地資本及技術의 注入에 依하야哺育되고 成長한 半島工業發展의 經過에照하야 關係識者及企業家에賦課된重要案件이라고생각한다

半島의 鑛山業이 鑛多한地下의 處女資源開發의 任을帶하야 産金事業을 首로하야 國家의財政經濟에 多大한寄興를하고 잇는것은 意를强하게하는바로서此部門에서도 更히 速度를빨리하야 國家의 急需에 應함에는內鮮企業家의 積極的進出을 要한다 그러나 昨今의情勢는此等工鑛業振興에 要하는 資材의不足을嘆할狀態에 잇지만 可能한限 合理的方法을 硏究하야 國家의 助成策의 適實과 相俟하야 最善을期함이 時局에 對하야 負한 國民의 時務라고 信한다

一昨年開催의 産業經濟調査會에서는 農林水産業、工鑛業、商業、貿易、金融、交通等各般에亘한 半島의 産業經濟振興策에對하야 熱心히 討議되여 其記錄은 施政上至今도 오히려 貴重한 參考資料로 되고잇는데 事變이 齎來한 東亞諸事情의 激變及 戰時國策上의 痛切한 要求에 鑑하야 與底의 深刻한時局을 前提로하야 다시 諸問題를 再檢討할수밧게업는 所以를 各位는 御了承하여주기를 希望한다

이제 時局이 重大한것은 勿論이나 先般日蘇間에 一大衝動을孕한 張鼓峰事件은 我北鮮國境과 一衣帶水의 彼岸에 發生하엿다 幸히 皇軍의 忠烈한威武와 外交交涉의 適宜를得하야 一時解決點에 達하엿다고하더래도 對者에 賜心잇는限 第二、第三의 類似事件이 到處에 起하야 我國民의忍耐力을 極點에導하지어렵지 안하 此境遇 我北鮮地方의 特殊한 重要性은 更히 檢討될것으로 道路、港灣、防空通信、鐵道等諸般의 施設은 總히 國防의安全强化를 眼目으로하야 有事日에備하는用意를 特히 必要로한다

此를要컨대 朝鮮統治의 現段階로서 其負荷하는 責務에鑑하야 精神的方面에서도 物質的方面에서도 이제 正히劃期的態勢를整할 緊要한秋라고信하야 그對策을 衆智에 求하기로하엿다 本調査會의 諮問事項의範圍는 本職이생각하고잇는 劃期的計畫의全部를 網羅하고잇는데 모두 人的、物的兩要素에亘하야 國策的使命으로서 重大한것인故로此點에各位는充分洞察하야 愼重한 用意下에審議를다하기를切望한다 本職도 無論本會의成果에對하야 多大한期待를有하고 本職의 抱懷하는 根本方針에 一致適合하는 諸施策을採擇하야써 그實現을期하고 事實의如何에依하여서는 總督府의 永久的施政方針으로新整備로서 官民兩側의 立場에서 衆智를聚하야 함께 實行을容易하게하고저 生覺하는바이다 以上으로써 人事로한다

昭和十三年九月六日

朝鮮總督 南 次郞

(寫眞은 調査會會場)

## 陸의荒鷲部隊

### 大擧商城猛爆

【廣州五日發同盟】 四日의商城猛爆에 繼續하야 五日午後五時我田中部隊의 陸의荒鷲는 銀翼을 連하야 大擧商城을 大爆擊하고 敵軍事施設及陣地에 多大한損害를주엇다

## 我北進部隊

### 固始縣城側背遮斷

【廣州五日發同盟】 大別山系戰線에서의 敵第二線 防備陣地의 據點固始를 目標하고 四日午後 南大橋로부터 西北으로 前進한 我軍의 先鋒部隊는 五日午後五時頃迂廻하야固始西南方四粁地點으로進出、夕陽에는 同縣城腹背側으로나아가 어느새敵의 退路를 遮斷하엿다 그리고 我各中隊의 偵察에 依하면 固始에잇는敵은 同縣城東方을 흐르는河前에다 東南을 面한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잇다

## 葉家集西方敵

### 總潰亂狀態에陷入

【廣州五日發同盟】 葉家集西方地區의戰鬪는 二日夜半以來 이미 四日間繼續되여 今、長瀧、高橋等各部隊는 五日山岳地帶에據한 頑敵을 全線에亘하야 制壓하야 敵은 이미一部는 潰亂狀態에빠젓다 이方面의敵은 捕虜의談에 依하면 그兵力은三十六、十六、八十八의三個師이다 또葉家集南方으로부터攻擊한 我右翼正面의戰鬪에서四日까지 敵의 바든損害는 遺棄死體三百、鹵獲品은 輕機關銃十五、重機關銃三、小銃五十三、小銃彈三萬發、手榴彈二百五十發等이다

# 大別山麓堅壘擊破

# 廣濟總攻擊開始

## 空砲軍掩護下全面的進擊

【蘄竹鋪에서五日前田同盟特派員發】 大別山系嶮敵의堅壘를征服하고 廣濟를 威脅하고 士氣益益軒昂한我精銳各部隊는 追擊戰에依하야 五日夕 廣濟前面의敵陣能家寨를 確保한바 廣濟陷落은이미時間問題로되엿다

【蘄竹鋪六日發同盟】 大別山麓의 諸堅壘를 餘地업시 擊破하고廣濟를 眼下에바라보며 破竹의進擊을 繼續하고잇는 湖北戰線諸部隊는 마침내 六日午前七時를 期하야 廣濟總攻擊을 開始하엿다 即 左翼中野 長谷川部隊는 納家寨으로부터 一擧에獨山許家鋪方面으로부터 右翼佐野部隊는 揚家鋪線으로부터 中央 若松部隊는 五里坡로부터 廣濟를目標하고友軍荒鷲十數機의 空爆과騰村部隊의 掩護射擊下에 全面的攻擊을開始하엿다 廣濟占領은 目前에 迫頭되엿다

【小池口六日發同盟】 廣濟街道 挺擊部隊는 昨日에繼續하야 六日早朝부터敵의 據點觀峰寨에 挺身肉彈突擊을 敢行하야 午前七時마침내이를占領하엿다 全將兵은 山頂으로부터 西方五粁에잇는廣濟를俯瞰하고 意氣衝天하여 廣濟를僻敵하고 繼續追進中이다 그리고 他部隊는 廣濟南方의 要塞共立을 同時刻에占領하엿다

【小池口六日發同盟】 赤湖湖畔武穴으로부터 鞏架山南岸을 一擧에突破한 江岸南進部隊는 五日夜 同地西方에잇는 扶山의 敵에 猛攻을 開始하야 同夜半 미明後八時 大山攻擊을 開始하고 頑强히 抵抗하는敵과 白兵戰을 演出한後 同夜完全히 이를 奪取하야다 그리고 六日行動을開始한 ○○部隊는 午前十時지나襲泉寺、鑿峰尖線으로 進出하야戰果를 西北方으로擴大하는中이다

## 陸의荒鷲隊

### 潰走敵을銃爆擊

【○○基地六日同盟特派員發】 前田、釘宮、田中各部隊長 指揮의 陸鷲의○○機는 六日 午前六時二十分 廣濟東方陣地의 敵을爆擊하고 廣濟西方街道를 潰走하는敵에게 銃爆擊을加하야 多大한損害를주엇다

## 時事解說

### 國際著作權保護問題

文學、音樂、레코드等의著作權에對한 國際的保護機關으로는 萬國著作權保護同盟(베누條約)과 汎米利加著作權保護同盟(하바나條約)의 두機關이 잇는데 這兩機關에든이것을 合倂統一하야 一層强力的國際保護機關을 設立하자는 計劃이 進行되야 그 調整條約統一에關한草案等을 目下條約次回會議主催國인白耳義政府로부터 關係各國에 送致하여왓스므로 內務省保安課에서는 六日午前十時부터 關係省會議室에서 著作權審査會를 열고條約統一에對한 態度를 決定키로되엿다한다

◇

前記兩條約中 日本은 一九○八年十一月十三日伯林에서調印된 文學的及美術的著作物保護修正『베르누』條約에만 參加하엿는데 이條約은一八八六年에 締結된以來 數次若干式規定을 追加하고 內容을 修正하여왓다 內容은 文學的及美術的著作物에 關하야 著作者의權利를 保護하고저 著作權保護 翻譯權等 各種에對한 制限 著作權保護期間(例하면 著作者의 生存間又는死後五十年間等) 保護萬國同盟事務局設置等에關한二十條로 構成된것으로 一九一四年三月에 若干修正을加한後 只今에이르렷다

◇

統一問題에 對한 日本의 態度로서는 文化의 國際的提携라는 意味에서 欣然贊成할것이나 베르누條約에加盟國에 가장不利한 立場에서게되야 翻譯의自由를 剝奪하지못하고 도리어 飜譯條約을매즌 米國으로부터는飜譯의 自由를어덧는데 이번의 統一에依하야 米國으로부터어든 飜譯自由도 喪失할危險이 잇스므로 兩條約統一을 贊成하는條件으로는 飜譯權保留를 代價으로 主張할것으로 審査會席上에는相當히 强硬한意見이 나올것으로보인다

# 國聯總會出席次

## 郭、駐英支那大使

### 近日中주네브로向發

【倫敦五日發同盟】 駐英支那大使郭泰祺는 支那代表로서 第百二回聯盟理事會 第十九回聯盟總會에 出席코저 近近倫敦을 出發 주네브로向할터인바 同會議席上對日制裁를 目標하고 非聯盟國과의 紛爭에 關한 規約第十七條의 適用을 要請할터이라고 五日如左히 말하엿다

支那代表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이제 聯盟總會에서 規約第十七條運用의 斷行을要求할方針이다 支那民衆은堅忍不拔 難局에堪耐하고잇스나 日本의 侵略에 對한聯盟의 無爲無策한 態度에對하야 漸次不滿을품고 어떠한 强硬하고 그리고 支那側에 好意잇는 決議를 要望하고 잇는 것인데 日本은 聯盟에 干涉 하게될것이나 그 境遇에 自動的으로 規約第十六條의 制裁條項이 發動될것이다 아니 바듯이 發動치안허서는안될것이다

# 東北兩方壓迫코

# 漢口包圍陣을縮少

【北京五日發同盟】 四日突然隴海線附近○○으로부터 行動을開始한 新銳○○部隊의 進擊은長江을끼고 進擊하는 南方各部隊와함께 鄭州以南漢口에이르는 京漢線南段의 敵漢口北面陣地의全線에亘하야 東方으로부터 大强壓을주게되엿스며 一方蒲州鳳陵渡平陸正面을 連結한 山西西南部京漢線北段 西方諸部隊의 進擊은 北方으로부터의 一大重壓이 되게되므로 南北兩軍의 精銳로써 그有力한 半包圍陣形은 有史以來最大의 大戰線으로써 完成되여 漢口會戰을 包含하는事變最大의會戰은 敗殘支那軍의西走와더부러 漸次切迫되여잇다

## 招賢集을占領

【北京五日發同盟】 京漢線西方을 南進中인 ○○部隊는 懷慶西方 三十粁로 崇義鎭으로부터 東南進하야 三十一日 午後楊溝及吳橋를 못지르고 다시 吳橋附近의 殘敵을 掃蕩하야 一百의死體를 遺棄케하고 三日早朝黃河北岸의 招賢集을 占領、四日繼續 附近에는 敵第九十七軍長(宋哲元)及第九十四軍의 司令部가 잇섯스나 我軍夜襲을 두려워하야 재빨리 南方으로 遁走하엿다

## 河東岸의要塞

### 順河店陷落도今明間

【葉家集五日發同盟】 史河東岸順河店前面에서 지난三日來 我軍에게抵抗中인 敵第八十八師는中央直系의 精銳軍인만큼 前線으로부터潰走하고 自國軍을 叱咤督戰하면서 四日日沒頃부터 徹宵에 亘하야 근끼잇게 逆襲하여와서 我兩角理見部隊와의사이에肉彈이 相搏하는 凄慘한山岳戰이 皎皎한 月光下에 展開되엿는바 我部隊에 그가튼敵도마츰내 困服 五日朝來 漸次潰走하기 始作하엿다 彼我의死鬪가一晝夜에 及하야 附近高地一帶에는 敵死體가 山積되여 文字그대로 血河屍山의 凄慘한 情景을보이고잇다 또華畑山附近第一線의 殘敵은至今도아직抵抗中이나 我軍의 順河店占領은 今明日間에 될것이다

## 隴海線에서도

### 我精銳行動開始

【北京五日發同盟】 武漢攻略部隊의 果敢한 進擊에 呼應하야 我精銳○○部隊는 四日 突然行動을開始하야 隴海線方面 ○○을 進發, 所在의 敵을 驅逐하면서 ○方面으로 向하고 猛進擊을 開始하엿다 이로말미아마 京漢線南端方面의 敵은 一大脅威를 밧게되엿다

# 쳬코政府주黨에

## 讓步案作成코聲明發表

【프라하五日發同盟】 체코政府는 五日午後베네슈大統領司會下에 五日午後五時半부터 前後四時間에 亘하야 緊急閣議를열고 去二日베르히테스가-덴에서 히틀러、헨라인會見後의 情勢에 비초여주데텐問題의 對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그結果주데텐側에 다시 讓步를 하기로決定하고 讓步案을 作成하엿스나 콤뮤니케가 發表되엿다 政府는 本日 閣議에서 주데텐黨에 對한 決定案을 審議하엿스나 同案은 近近주데텐黨側에 提示될터이라고한다

## 八面鋒

◇ 殷栗郡에서는 眞性虎列剌患者五名이 發生하야 四名이 죽엇다고。

◇ 嶺南浦서도 六名이 發生하야 一名이 죽엇다고。

◇ 傳染系統은 如何間、速히 傳染을 防止할 方策을 實行함이 急務。

◇ 出漁禁止、檢便、豫防注射가 緊要。

◇ 安岳 故金鴻亮氏 遺志로 金十五萬圓을 高女設立費로 喜捐햇다고。

◇ 黃海道에 高女하나쯤은 切實한要求。

◇ 要求를 채우기 爲한金氏의 喜捨는 全黃海道民에生光이되것군。

◇ 私立高女 하나도업는 道에 模範이 된다면 一擧兩得。

◇ 世界視聽集中裡에 나치스黨大會 開幕。

◇ 風耶? 雨耶? 歐洲不和를占처보는 大會議。

# 產金振興會社

## 社長에田島道治氏

近近設立될 日本產金振興株式會社社長及副社長은 社長에 昭和銀行頭取 田島道治氏 朝鮮駐在副社長에 前滿洲探金副理事長 草間秀雄氏를 起用키로 內定한

# 胡適博士

## 駐米大使에任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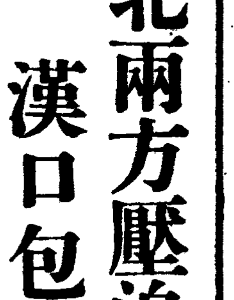
【香港六日發同盟】 支那側消息에 依하면 國民政府는 目下歐羅巴에잇는 胡適을 近近駐米大使에 任命할터이라고傳한다

# 羅卓英就任乎

## 武漢衛戍總司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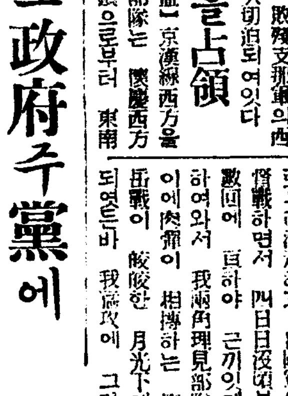
【香港六日發同盟】 漢口來電에 依하면 陳誠麾下의 第集團軍總司令羅卓英은 江西省北部에서 前線指揮에當하고잇섯는바 近近漢口에와서 武漢衛戍總司令에 就任키로되엿다 이것은 陳誠이 第九戰區總司令其他兼職多忙으로밀의 腹臣羅卓英을 그後任에 命한것으로보인다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釋되엇까닭에 發音이 正確 (內容見本即送 要二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硏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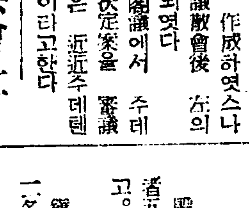
强力、殺虫劑 農作物의歡喜 『農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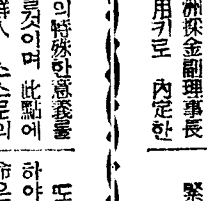
特히南京虫、鷄의羽虫、犬의 진드기等에는 粉狀그대로撒布하면 效力絶大함

其效果 斯界의驚威 かんこう殺虫劑配給元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四番地 根本久作商店 電話(2)一四六〇番 振替京城一一〇四七番

ビクター蓄音器 各種在庫豊富



コロムビア蓄音器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話光化門四八一番 振替京城二二七六六番

メガネ 萬年筆 良品廉價 直輸入卸 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 振替京城二四七六○ 商報進呈

音樂敎授 피아노、聲樂、바이올린、其他敎授、初步者歡迎 京城明治町一丁目三二 音樂社スタヂオ 規定書進呈

朝報案內

外務 京城蓮池町一八 金石堂

讓店 市內要地洋品文具店盛業中

讓渡 每日五十圓賣上古書籍商

外賣係員募集 小賣外賣係 數名 本町 鐘紡

新民謠 꿈꾸는時節 (K-1218) 서울레코드 黃琴心 李圭南 빅타-

流行歌 은연히情드러 KJ-1316 追憶만구비구비 表鳳天 朴丹馬

# 虎列刺繼續發生!

## 今朝黃海道金山浦서 眞性三名又判明
### 恐怖의西海岸一帶

【海州支局電話】 진성호열자가 발생된 은율군금산포(殷栗郡金山浦)에서 또다시 오늘 오전 아홉시 검변결과로 용의환자중에서 이도면강현리(二道面江縣里)광부 정선화(鄭璇和)(三三) 금산리 정금계(鄭金啓)(二九) 옹진군마산면동남리(甕津郡馬山面東南里)강동규(姜東奎)(二九)등 세명을 진성호열자 환자로 결정되어서 해안일대는 드디어 공포의 지대로 화하엿다

### 眞性累計十一名
### 松禾에서도一名發見

육일아침 총독부위생과에 들어온 보고에의하면 금산포를거처 오일진남포(鎭南浦)에들어온 새우젓배중에 변봉춘(邊逢春)(四□)조상복(趙尙福)(二□)의 두명이진성호열자로 판명되엿고 송화(松禾)에서 한명 금산포(金山浦)에서정선화(鄭璇和)(三三)정전계(鄭全啓)(二九)의두명이 새로발생되고 또옹진군동남면무파리(甕津郡東南面茂邑里)강동규(姜東奎)(四□)라는 사람이진성호열자로 판명되어 합게여섯명이더늘어서 이제진성호열자가 열한명에달하엿다

## 全道에檢病調查
### 海水使用漁獲禁止令發布코 海岸에는監視所急設

【海州支局電話】 황해도경찰부에서는 관하각경찰서와 소방조、자경단을 총동원시켜 철저한 검병적호구조사(檢病的戶口調查)를 실시하는동시에 해안일대에 감시소(監視所)를설치하고 선박의 출입을엄중경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오일부로 하해수사용(河海水使用)유영(遊泳)과 고기잡이、생선관매의 금지도령을발표하엿다 그리고 각접객업자를 비롯하야 일반에게 예방주사를 철저실시하는동시에 다른 병이라하드라도 병난사람을 철저조사하는등 방역대책을 철저실행중이다

## 平南도海水使用禁止
### 防疫道令을再次發動

【平南支社電話】 평남도에서는호열자예방상필요로 아래와가튼도령을 오일부로 발포하야 즉일로실시키로되엿다 그결과대동강(大同江)하류일대의 하수사용 고기잡이 해조채취등을 일체금하기로되엿다 평남도령은 다음과갓다

道令第二十七號

호열자예방을 위하야 전염병예방령제칠조에의하야 좌기구역에잇서서 검강진단 또는 사체검사행함

▲同區域 平壤府 龍岡郡 江西郡 中和郡 大同郡 平原郡 安州郡

▲水面의漁撈、遊泳使用禁止區域(道令第二十八號)

一、江西郡普林面觀浦里保山港及그下流一帶의大同江水面

一、龍岡郡貴城面龍島里北端 同里末島北端으로부터 同面德島의西端을 經由하여 黃海道松禾郡豐海面西端에 이르는線內의海面及 여기에接觸하는水流

▲漁撈、海藻採取禁止區域 當分間左記區域에잇서서 採取하는生鮮貝、及海藻等의類를 蒐撈하고 또는그區域外에잇서서採取하는것이라도 本區域內에드러와서 蒐撈하는것은 그販賣또는 收授를 禁止함

但、本令後端의 事項에對하야서는 防疫官吏가 支障업다고하는경우는 此限에不在함

一、江西郡普林面觀浦里保山港及그下流一帶의 大同江水面

一、龍岡郡貴城面龍島里北端으로부터 同面德島의西端을 經由하야 黃海道松禾郡豐海面西端에 이르는線內의 海面及여기에 接觸하는 水流

一、江西郡赤松面近海에서下流하는 水流

## 總督府衛生課
### 防禦對策講究

속속발생하는 호열자에 대하야 총독부위생과는 그대책을강구함에 여력이업는터인데 아직도 발생게통이 확실하게 나타나지안어서 고심하고잇는동이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모든발생상태를 미루어보아 원래 금산포부근에서 호열자의근원이 잇섯고 아직도 금산포에서 더발견되지안흔 환자가잇다고 추정되는바 우선 다음과가튼 응급대책을 강구하기로되엿다

一、발생된 관게방면을 일제히 검변(檢便)조사할것

二、각각 세밀하게 검변(檢便)을할것

三、금산포부근일대에는 모두예방주사를 시행할것

四、일곱척의 새우젓배의 승조원은 모두 상륙을 금지하야 격리시킬것

五、이미 상륙해버린 승조원은 그행방을 조사하야 이를 격리할것

六、금산포에 출입하는 선박의 행동을 전부 조사하야 빨리 나머지 환자를 발견한후 그를 처치할것

七、금산포자체의 방역에는 물샐틈업시 만전을 기할것

八、금산포에서 배가 왕래하는 평남、북 황해등 서해안일대의 각항구를 엄중경게할것

九、금산포일대의 해수(海水)어로(漁撈) 유영(遊泳)등 금지령은 이미 도령으로 공포실시하엿다

## 京城府
### 緊張裡警戒

인접도에까지 호열자가 침입하야 교통상밀접한관게로 칠십만경성부민도 만일을 경게하지안흘수업는 사태에이르렀다 부당국에서는 지난번이천에 보균자가발생한것을 기회로 한강연안주민 수상생활자 수도관계자를비롯하야 지난이삼일부터일절저이 실시하엿스므로 지금은안연상하기다를 시중가지중이다 그러나만일 아무래도우려한지경에 이르면 부민에게일제히 예방주사를 실시하야 경성시내에는 한거름도 들어오지못하도록만전의준비를 하고잇스니 부민일반은 일상음식물에 더한층주의하야 당국의방역진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한다

## 南浦漁組打擊
### 飲食店全部消毒

【鎭南浦支局電話】금번호열자발생으로말미암아 어획이 금지되는데따라서 진남포 어업조합은 벌써 수십만원의 타격을밧고잇다 그리고 부내음식점은 전부 재소독을하고 특별주의를 촉진시켯다

## 廢物을蒐集

【■■】평남개천군조양면사무소직원(平南价川郡朝陽面事務所職員)일동은 지난구일에 시민일동(■■■民一同)에게 폐물을수집하얏다는데 그수집물을 판매하여 국방헌금을할예정이라고한다

## 二千萬圓株拾得
### 報酬金은單壹圓也!

미완성주권(株券)이라고는 하나 이천만원어치를 실복하얏는데 보수금이 일금일원이라하야 화제를이르키고잇다 지난이일 대판북구소심정(大阪北區小深町)삼영운송점 점원 강전삼랑(岡田三八)(□□)이란사람이 습득한 주권이천만원어치는 증근기(曾根崎)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조선재벌의 거두 야구(野口)씨의 회사인 압북(鴨北)평북(平北)양철도회사의것으로써 조선으로 인쇄수송중에 일은것이 판명되엿는데 이보수에대하야여러가지로 물의가분분하더니 오일 증근기경찰서에 일본질소회사에서그보수로 일금일원을가저다주엇스므로 습득자도 습득자이지마는 삼자이경찰서에서도 너무나 소액임에 깜짝놀라고잇다

## 西海岸漁獲物
### 移入禁止를布告
#### 京畿道의防疫對策

경기도경찰부에서는 황해및평안남도에서 발생한 호열자의도내침입을 방지키위하야 육일에도령(道令)으로 금후 전기량도바다에서 잡은생선 조개 해조등일체를 도내에가저다가 팔거나 주고밧는것을 금지하기로되엿다

▲경기도령제삼십사호=생선패조류(貝藻類)이입및판매수수금지에관한건

호열자예방을 위하야 전염병예방령제십칠조의 규정에따라서 황해도및평안남도의 해면에서잡고 또는 채취한생어 패조류및그해면을 생책(生簀)대로통과해온 어패류의 도내이입및도내에서의 판매수수를 금지함 이령을 위반하는자는 오십원이하의 벌금또는과료에처함

## 重石盜堀黨과結托코
### 贓品故買하든뿌로커ー一黨
#### 龍山署에서檢擧하야嚴調中

성동대금강산(金剛山)을 좀먹어들어가듯파헤치는중석도굴당을 철저히 방지하고저 시내각경찰은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잇던중 대규모의 도굴당이 금번용산서에 괴검되엿다 수일전부터맹렬한활동을하고잇던 동서형사대는 오일오후에 모방면으로부터 본적을 포천군창수면오가리(抱川郡蒼水面五佳里)에둔이종춘(李鍾春)(四五)을 검거하고 극비밀히 취조를하고잇는데 이는 금년사월경부터 금강산을 중심으로도굴부들과 결탁하고 이들로하여금 중석을 도굴케한후 이를 헐가로 매입하야 경성각중석상에게파럿다는바 현재판명된액수만 수만원에 달한다한다 육일에는 다시금 모방면으로부터도 금파부 이재춘(李在春)(四□)외수명을검거하고 게속엄중 취조중인데원체 대규모임으로 취조여하에따라 의외에방면에까지 검거선풍이 이를지 모른다고한다

## 荷車橫領
### 마음이 너무 조하도

문제이다―오일오후네시쯤해서 부내 신당정(新堂町)이백칠십칠번지에서 하차(荷車)운송점을내고잇는 이세(伊勢)이까방에 주소도 성명도 알지못하고 겨우 얼굴만 면번본일이잇는듯한 남자놈이 들어오더니 잠간 짐을 옴길일이 잇스니 마차한대만빌려달라고 간청하므로 마음좋한 전기"이까"는 그러라고 선선히 빌려주엇더니 두사나이는 고맙다고치하한후 마차에 말을메워가지고 나간채 종무소식임으로 그제야 속은줄알고 육일동대문서에 보고해왓다

## 舞踊家趙澤元氏
### 七日午後一時半京城着

파리(巴里)에서 무용을연구중에널리 조선의고전무용을저땅에 소개도하며 처처에무용행각을하고 도라오든 도중에잇든 조택원(趙澤元)씨는 그간동경(東京)에 잠간머물러잇다가 일전동경을 떠나 칠일오후한시삼십분경성역에 도착키로되엿다

## 庭球界의最高峰!
### 實業庭球리ー그
#### 東拓加盟·十四日開幕

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의 秋期리ー그戰은 來十四日부터 十日間 朝鮮銀行코ー트와 殖產銀行코ー트에서 擧行될터인데 이번 秋期부터 東洋拓殖會社가 새로히 加盟하게되여 殖銀、專賣、商銀、府廳、鐵道、遞信等의 七個團體가 出戰하게되엿스며 朝鮮銀行은 不得已한 事情에依하야 秋期에는 出場치못하게되엿다는바 秋期리ー그의 對陣과 日程은 다음과가티 決定發表되엿다 (競技時間은 普通日은午後四時、土曜日은 午後二時、日曜日은 午後一時)

(朝鮮銀行코ー트)

▲十四日(水)=殖銀…東拓
▲十五日(木)=府廳…鐵道
▲十六日(金)=殖銀…專賣
▲十七日(土)=商銀…遞信
▲十八日(日)=專賣…東拓
府廳…東拓
▲十九日(月)=殖銀…府廳
▲二十日(火)=專賣…遞信
▲二十一日(水)=府廳…遞信
▲二十二日(木)=商銀對東拓
▲二十三日(金)=遞信對鐵道

(殖產銀行코ー트)

▲十四日(水)=專賣…商銀
▲十五日(木)=遞信…東拓
▲十六日(金)=商銀…府廳
▲十七日(土)=專賣…鐵道
▲十八日(日)=殖銀…鐵道
殖銀…遞信
▲十九日(月)=鐵道對商銀
▲二十日(火)=鐵道對東拓
▲二十一日(水)=殖銀對商銀
▲二十二日(木)=專賣對府廳

## 蹴協評議員會
### 來十一日에開催

朝鮮蹴球協會評議員會는 九月十一日 正午부터 京城府靑木堂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이번은 大日本蹴球協會憲章改正에 依한 最初의會合인만치 다음과가티 重要한 討議事項이 잇슬터이라한다

◇會議順

一、大日本蹴球協會方針의提示
二、改正憲章과 細則의說明
三、地方協會規約準則과 支部規約準則의說明
四、事業計畫에關한件(三地方對抗戰과朝鮮體育會主催蹴球大會引繼의件)
五、本協會今年度豫算에關한件
六、各支部豫算과決算에關한件
七、事務連絡에關한件
八、各支部報告
九、其他事項

### 運動界人事

▲崔在鵬君(前氷上選手)이번 京城稅務監督局鑑定課技手로就任 人事次來社

▲孫■俊君(府廳野球選手)이번漢城銀行本店에轉職 人事次來社

## 富山縣氷見郡에大火
### 映畫舘發火로三千戶燒失

【金澤電話同盟】 금택운수사무소에 도달한보고에의하면 육일오전한시경 부산현빙견군빙견정(富山縣氷見郡氷見町)의 빙견역에서 오、륙정가량 떠러저잇는 영화관에서 불이나서 때마침 십미돌내지 십오미돌의 세찬바람에 불길은사면으로퍼저 오전다섯시까지에 이천호중에일천삼백호를전소하엿다 남은것이라고는 빙견정거장근처뿐이오 경찰서 상공회의소 소학교등이 모두타버렷다 고강역(高岡驛)에서는 빙견역의 만일에응급코저 화물자동차를 급파하엿다

【金澤電話同盟】 빙견정대화는 오전다섯시반쯤에 진화되엿는데 소실가옥은 삼천호로서 전호수 삼천삼백육십호중겨우 삼백육십호가 남앗슬뿐이다 전소된 동리는 다음과갓다

▲御座町 高砂町 南上町 南中町 川原町 仕切町 七軒町 本川町 入船町 中町 湊町 今町 加納町 池田新町

### 被害五百萬圓
#### 死傷者도多數할모양

【高岡電話同盟】 빙견(氷見)의화재로인하야 사상자가 만흘모양이나 통신두절로 상세한것은알수업다 빙견정거장도 한때 위험에 빠젓다가 겨우연소를면하엿다 빙견의 호수는 삼천삼백육십호、인구 일만사천삼백십칠명으로 고강시(高岡市)에서 북쪽으로 육십리되는곳이다 손해는 오백만원이상일듯하다

## 市內典農町에火災
### 自動車附屬工場全燒
#### 一名重傷、損害三千圓

육일오전열한시 오십분 부내전농정(典農町)오백팔십삼번지의십오호 스프링그제작소에서 불이낫는데 작업중의 직공 고유만(高有萬)(□)의 한명의 중상자를내엿다 원인은실화 손해는약삼천원이다

## 聯合靑年團總會

【延安】연백군연합청년단(延白郡聯合靑年團)에서는 지난사일오전구시에 연백공립심상소학교정에 유백구십무명의단원이 엽장식을거행하자 개회선언에의하야 연백연합청년단장의 식사 이어솜후 황해도지사의고사가잇섯스며 내빈축사도잇섯다

## 侵入系統依然不明
### 支那海岸의屍體流下?

【海州支局電話】이번 호열자의 침입게통에대해서는 황해도경찰부에서 극력조사중이나 아직확실한게통은 판명되지아니하엿는데 지금추측되는것은 첫재 지나지방안으로부터 호열자에걸려죽은시체가 바다가운데로 떠나려온것이아닌가하는것 둘째 지나인의 밀선(密船)이드러온듯 보균침입한것이아닌가 하는점으로 방금 각방면으로 조사를계속중이다 방역의 만전을 도모하려면 그침입게통을 하루속히 아라내야할 필요가잇스므로 도당국은 초조중이라고한다

## 逃走漁夫卅名發見
### 瓮津에隔離收容
#### 그들이通過한松禾、長淵、苔灘、瓮津의 旅人宿飲食店엔營業停止令

【海州支局電話】금산포에서처음 호열자가 발생하자 동행햇든어부사십여명이 즉시 육지로 올라와 모두도망해버려 경찰이수사중이라함은 작보와 갓거니와 은률경찰서에서는 오일중에 이들중삼십명을 금산포 부근초락에서 발견하고 이들을 모두옹진군동남면(甕津郡東南面) 해태제조소(海苔製造所)에 격리수용하고 보균자의자로 철저한검변을 개시하엿다 그리고 이들이 상륙하야 들렷던일이잇는 송화(松禾) 장연(長淵) 태탄(苔灘) 옹진(瓮津)의 네지방의 음식점과려인숙은 전부엄밀한 소독을행하는동시에 전부 영업정지를명령하엿다

## 愛國切手賣出好績

체신성에서는 민간항공발달을 도모하고저 문부, 육해군각성의 협력을어더 작년 사월일일부터 애국절수, 애국엽서를 팔기시작하엿다 즉 이전절수를사전에 삼전절수를 오전으로 사전절수를육전에 이전엽서를 오전으로 특별애국절수를파러 남는돈으로 지방비행장설비에 충당하는것으로 지난 칠월말까지 조선안에서 팔린수를 체신국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이전절수가 칠십이만 오천육백칠십오매 삼전절수 십삼만 일천구십칠매 사전절수가 백팔지만일천칠백팔매 엽서가 팔십이만삼천사백육십팔매로 그잉여금만도 팔만일천칠백여원에달한다

## 高敞學院財團財產의 今秋收穫을假處分
### "一切管理權도原告側으로"
#### 京城覆審에서決定

부내 보성중학(普成中學)의경영모체인 재단법인 고계학원(高敞學院)대 정봉현(鄭鳳鉉)외 고희원(高熙源)씨외 삼명에대한토지소유권이전및 소작권인도청구소송은 지난오월이십사일 고등법원도변(渡邊)재판장으로부터원고가 이심에서 패소한데대하야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복심으로 차려(差戾)한다는 판결을 나렷는데 그간 원고측에서는 개쟁중인 토지수확에 대하야경성복심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엿든바 구월일일부로 그토지에대한 소작권은 물론 관리권까지 원고측에서 가지도록 결정되엿다

## 罪는虛榮에!
### 民籍僞造한娼妓

시골처녀가그릇된 호강사리를 하고시픈마음에 동갑된 사촌의 이름을비러 창기영업을 하다가 『사기(詐欺)사문서 위조행사(私文書僞造行使)』죄명을 쓰게된것 지모험한사실이잇다―용산서에서는 오일에 부내미생정(彌生町) 심이번지 만금두(萬金權)창기오숙옥(吳淑玉)(□)이를 검거하고 사기죄로 취조를하고잇는데 이는충남서천군서면원두리(舒川郡西面元頭里)정용애(鄭龍愛)의딸로이년전에 아버지가행방불명이되엇슴으로배부인 오래환(吳來煥)(□)의집에 잇게되엇는데 서울가서 창기노릇이라도하여 호화로운 생활을해보기가 원이엇스나 행방불명된 아버지의허락을 바들수업서 창기노릇을못하고잇다가 지난칠월에 배부인과 오래환이와 공모하고 동갑인 사촌 오연복(吳蓮福)(□□)의 민적을 빌어가지고 부내용강정(龍江町)이백유십유번지 윤동운(尹東云)(□□)의 소개로 오백원을밧고 사개년계약으로 창기가되엇다는데동서에서는세명모두취조가끗나는대로송국하리라고한다

## 色鉛筆

거리의 잡음은 상당히 정리되엿다 자동차 저차의 경적으로 빽빽하는 쇠소리나는괴악한 소음은 제한되엿다 그만해도 거리는 떠조용해젓다 ▲복잡한 도회에는 귀와눈을 어즈럽게 하는것이 너무나 만타 신경쇠약에 들리지안을수업는경우에 잇는터이라 무용한잡음과 무용한색채의 망선을 될수잇는대로업시하는것이 도시미화(美化)와도 시인의 위생을위하여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거리의 괴상한음으로 남어잇는것은 불자동차와 정오를가르치는 경적과 신호뿐인데 근일에들으면 학교에서상학과휴식을 알리는 종소리대신에 왱왱하는 불자동차소리가튼 신호를쓰는곳이 만타 ▲본래학교는조용이 공부하는곳이어서 더구나 잡음을제하고 소리를질요한데도 아름다워야할것이 무슨야단이나 난것가튼 불자동차소리를놀랍게내는것은 아무리생각해도 괴상하다 ▲학생들의마음을 전투적으로지키기위해서 리듬적인 신호를 쓰이로올것이니 소리의 아름다움을 끌르지못하는 문화인의 수치일줄아는것

##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조선음악 解說 任東赫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趣味講演 ▲七時三〇分 演藝講演 ▲八時(東) 室內樂 ▲八時三〇分 라디오코메디 ▲九時 新民謠 ▲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物語 ▲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三〇分(城)唱歌 ▲八時(東)室內樂 ▲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八時四〇分(東)靑年時間 ▲九時一〇分(東)講談

## 天氣豫報

概況 猛烈한颱風은 昨日近畿地方을거처서 北北東方으로進行하고 今朝는 日本海中部에잇다 高氣壓은 蒙古와本邦東方海上으로 퍼지고 滿洲中部에는 弱한低氣壓이잇고 關東中部에 氣壓이 가장놉다 朝鮮은 時雨가不定하고 西部가개이고 北東方에는 小雨가온다 西日本太平洋岸은 개이고 其他는흐린다 關東以北은 바람이 가장강하고 北九州에는비가온다

豫報 今夜와明日은 개인다음 一時흐린다

昨日最高 二九度四 今朝最低 一五度四 正午 二六度九


慰問袋에 イマヅ蠅取粉

支那의南京虫과이는夏冬의別이업시 執拗히皇軍勇士를 猛襲합니다 蠅取粉은이런虫은問題업시退治되고使用携帶에 便利해서兵士들에게업서서는안될物品입니다

世界的大發賣!! 都藥房淋藥을

百萬의宣傳보다가實物이말하는 淋藥을 이떠한가가 一次試驗하시어根治하소서

無代進呈

一、無代進呈規定 淋疾이들린年月日
一、居住市內藥房主人의證明과藥店印鑑捺印할것
一、送料參拾錢郵票封入할事
一、一部에一名의先着順位에限함
一、服用後根治되거던 快報로通知하시오

藥價 一圓 京城驛前 各國藥品問屋 合資會社 都藥房 振替京城二七七 電本七四八二番

時計 スイツル 貿易商會

桜谷 李鳴鶴先生 運命鑑定所 六七八五

늑막염

可燃性根治藥! 乾濕性肋膜炎에百發百中 藥價十圓 아모리藥을써도안이나신분은곡服用하시요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一二二九九番

◆辭典卅冊 合本ダバの一圓卅錢 分冊は各冊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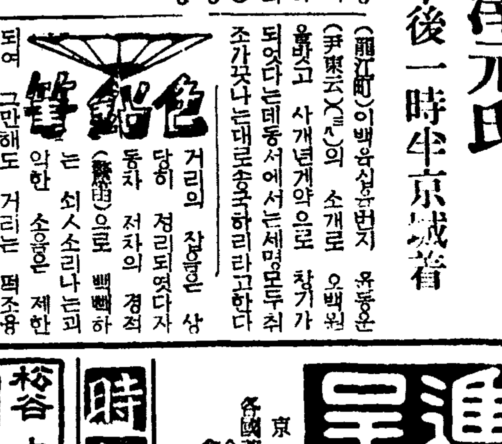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特別景品 代進呈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東淀川局區內西町 振替大阪五一六二一番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新學期開始 京城中等學院生徒募集

中等科、中等學校入學準備科、商科、速記科 (規則書請求要三錢切手) 京城府林町八二番地(黃金座前側入) 電話本局六五二七番



ナショナルランプ에 밝고強한乾電池

람푸는 乾電池

ナショナル乾電池

松下乾電池株式會社

참으로美味한 銘酒 誠鶴

秋氣正히清朗 誠鶴의美味 天下에冠絕

釀造元 深見釀造場

# 名藥案內


## イチゲキ

家庭用 超强力殺虫液 人畜無害

모기、파리 진드기 벼룩、에 빈대等害虫은 이イチゲキ로 即刻全滅! 그리고 香氣가 말할나위 업시爽快

TRADE MARK

品質斯界隨一

カンサイハイトリ紙
カンサイ蠅取リボン

關西ハイトリ紙製造合名會社 岡山市

## 肺結核

體力을强케하고治癒를促進함

本劑는 牛乳蛋白消化아미노酸에 비타민B를 加하고 更히 結核治療藥 구아야고ー루化合體를 配合한것으로서 一劑로 榮養과藥物과의 兩効果를 收得합니다。 即……첫재食慾이나고、疲勞倦怠感을 업새고咳嗽 喀痰·盜汗을輕減하고 또榮養을增進해서 病勢의惡化를 防止하야 治癒를 促進함。

肺尖가다루 肋膜炎 氣管支炎 榮養不良 貧血 에

구아야고ー루

ポリタミン 포리타민

四百五十醫學博士御推奬

甘美味 液劑

小瓶(一圓六〇) 中瓶(二圓六〇) 大瓶(四圓七〇)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 仁丹

昭和의常識 含嗽藥은口中에서吐하게될때까지 返復하는것이잘됫는效果

俄然大評判이된 仁丹의新容器進呈

防共容器 크로ー므製、世界地圖의意匠으로 濃洒한中에重大國策을 銘記해서잇지안토록한 必携의時局容器 即時最寄의藥店에

體育容器 골푸型、크로ー므製 淸新潑剌한感覺中에 體育精神이橫溢한新容器 即時最寄의藥店에

實物圖

어느거나 銀粒仁丹 五十錢包에 添附 進呈

本舖·森下仁丹株式會社

## 漢方中山胃腸藥(散藥)

中山忠直先生創製

이藥은 漢方醫學復興의主唱者 中山忠直先生이 多年研究한結果 完成한것입니다 現在各地醫家의賞用을 밧고잇습니다。 多年胃腸病으로 辛苦하시는분은 꼭『最後의試驗』으로 試驗해보십시오。 滿足을 어드실줄압니다。

効能

胃潰瘍·胃痙攣·胃痛·急性及慢性胃腸가다르·胃酸過多症·胃擴張·胃腸下垂症 宿醉·消化不良·胃腸醱酵症·溜飮·過飮·過食·下痢·嘔吐·車暈·食慾不進·食傷 船暈

(試藥進呈)、 本研究所에申込하시면 試藥無代進呈함

定價 一個月分 三圓五十錢 十五日分 二圓 五日分 一圓 送料 內地 十錢 其他 四十二錢

東京市牛込區若松町十二 皇漢醫學 中山研究所

## フロービン錠

强精·疲勞恢復劑

후로ー빈

三十錠 五十錢 五十錠 七十五錢 百錠 一圓三十錢 五百錠 五圓

東京·京橋 ラヂウム製藥株式會社

## 淋疾

ネオカルゴノーゲン 네오가루코노ー겐

小便보기가迅速히好轉하는것—疼痛排濃等의自覺症狀이速히消失하는것은本劑의最大特長입니다

20錠…六〇 50錠…一三〇

文獻進呈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NO 138

## おしどりコナミルク

舶来品に優る 無糖 全乳 おしどりコナミルク

日本小兒科學會 諸權威御推奬
帝國大學教授農學博士 宮脇富先生指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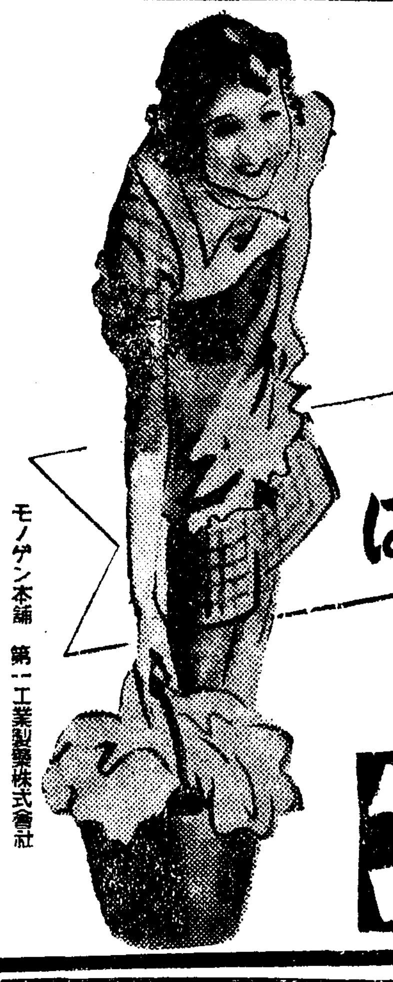
低溫處理 絕秀質品

無糖·有糖

本舖 東京·銀座 長井越作商店

## モノゲン

スフや毛織のお洗濯には



스·프와는 비비지안코 손쉽게 毛織은주려들지안코 말숙하게新品同樣으로 됩니다!

定價 一〇 二五 三五

有名藥局·藥店 化粧品店·미파ー트等에잇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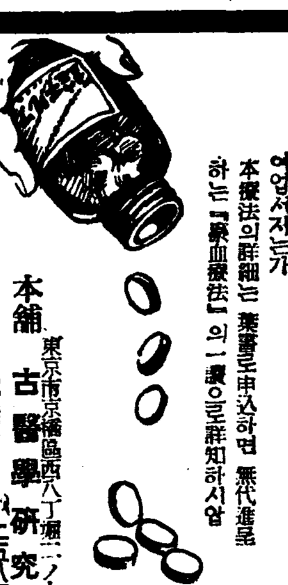
モノゲン 特許新洗劑

モノゲン本舖 第一工業製藥株式會社

## 왜머리病으로 …辛苦하는가…

우리들의健康、即生命을 左右하는 內臟의變調에 關해서 放心은 禁物입니다 單只머리가무겁고 부틈이나고 어쩐지 記憶力과根氣가업서서 귀기울고 엇게가결리고 上氣、眩暈症이잇다 이것은 陽氣의 탓이겟지 神經衰弱인지도 모르겟다는等 싱겁게생각하고잇스면 結局은 바보나、狂人이되는 瘀毒症이나 普通말하는 脊髓癆或은動脈의 硬變으로 可恐할 腦溢血이나 半身不隨의重症을 免할수업습니다 그런데 以上의原因은 젊은기운의 過失로因한 感染毒이거나 父母의遺傳毒에 질겨마시는 酒、煙草 肉食毒等이 겹처서 古方醫學에서 말하는 『瘀血』이되고 血液이濁하야 血行을妨害하는까닭입니다 故로 『瘀血』을 업새고 無毒하게되면 自然健康體가되는것은 當然 그러면어떠케하면 病根『瘀血』이업서지는가

本療法의詳細는 葉書로申込하면 無代進呈하는『瘀血療法』의一讀으로詳知하시압



三圓 五圓 十圓

全國藥店에잇合

本舖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 振替口座東京六五三〇八番

## 病毒排除 フルチル錠

主効 血壓亢進症、中氣 動脈硬化症、梅毒 腦神經衰弱、胎毒 半身不隨症、喘息 神經痛、頭痛

## 리베ー루

本劑는 腸粘膜에서의 吸收가 特히 速하고 時間藥散服後 尿는 靑色으로 變하야 强한リベル臭를 發散하야 排出하며 殺菌·利尿·鎭痛은 말할것도 업시 곳快感을感하게됩니다

리베ー루는 急性에나 慢性에나 꼭效力잇는治淋藥임니다!

大阪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貳圓·貳圓五十錢·三圓七十錢·六圓·拾貳圓 各藥店에有

## スキー

가려움막고·모기못덤비는구직

慰問袋에반드시本品을 最適

スキー 스키ー

가려움을막으라

此等毒虫의 쏘음으로말미아마 이러나는『가려움』을 即席에 解消하는 新劑로서 大人은 勿論이고 幼兒일지라도 連續使用해도 곰도皮膚를害치안코 無脂肪性인故로 感觸이조코 香氣가조흐며 또瘙痒部의 搔傷處에 化膿菌의 侵入을 막고 皮膚炎豫防도 됩니다。

大阪市東區伏見町三丁目二七 發賣元 光藥商會

## セナチゾール·パスタ

세나치소루

腫物과 切傷의 化膿 防止와 治療에

마루피ー印 Ⓟ

定價 一〇瓦 三五錢 二五瓦 七〇錢 (液劑잇合)

製造發賣元 大日本製藥株式會社 本店大阪道修町·支店東京本町

## 株式會社 新井藥房

一般藥品 新藥賣藥 衛生材料 卸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 家庭

아이들의머리

잇는집에서

## 애못낫는것은 고기반찬때문

### 푸성귀를만히먹어야잘낫습니다 비타민·이의수태력

구주대전당시 독일오—스트리—나라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대단한편식(偏食)에빠저 부인네의 영양이말이못되어 월경이상의 환자가 사무생겨 애기못낫는경향이 현저햇섯습니다 그런데 음식물과 임신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요즘시끄럽게 논의되여잇는 임신물과『비타민 삐』와의관게는 어떠지여러해동안 애못낫는 병에대한것을 연구하고잇는 등원(藤原)박사의말을 드르면 이러합니다。

◇

음식물과 임신과의관게는 상당히 기픈것이잇는데 예를드러 말하면 칼슘분이부족하면 애못낫는다든가 또 망간、린 카륨이 부족해지면 임신은하나 유산하는등이 만타고합니다。또 상류가정부인의 임신율이 나진원인은 너무 맛난것을 잘먹고 몸을 안놀리는까닭이라고합니다만 어쨋거나 담백질을 너무 편식하게되면 애기를 잘못나케됩니다 흰쥐에게 새끼를 만히먹어고본즉 자궁이 시들어저서 나중에는 새끼를 못나키람니다。또 운동부족、변비가 수태율을 저하시키게하는것도 보고되어잇습니다。또독쇼와—노라는부인이『비타민·이』가 부족한 머기를 동물에게 주즉 새끼를 못나코수태가되엇드래도 공유산되엇드라는것을 발견햇다 합니다。

생물의 번식에『비타민,이』가 필요한것은 이미결정적인것인데 일반으로 동물성의 음식물、즉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생선속에는『비타민,이』가 그리만히 들어잇지못합니다。그런데여기에 흥미잇는 실험보고가잇습니다。

『에반스』라는 학자는 불임증이된 쥐를 고미시키면서 매일 오그람식 신선한 상치를 계속해먹이즉 불임증이 낫드라는것입니다。그러고보니 상치에『비타민,이』가 만히드러잇는것을 알수잇고 어외에도 무、배추、싱금총 가튼데도『비타민,이』가 만히 드러잇스며 곡식과 씨앗으로 짠기름에도드러잇습니다。

이를테면 밀、강냉이、콩기름、낙화생기름、오레—브기름 속에만히잇는데 그중에서도 밀에 만히잇스나 맙려서 대겨서 가루를 해노흐면『비타민,이』가 주려들고맙니다。즉 이것은 밀의눈속에『비타민,이』가드러잇기때문입니다。쌀눈에도조금드럿습니다。『코코나츠』기름 오—렌지즙속에는『비타민,이』가 퍽만히 잇습니다。

## 표준가격바람에 일할이싸진솜갑

### 무명솜、비단솜、카포크 어느것을써야경제될까

공정표준가격이 정해저잇서서 첫이닥처오는 솜도 한때는 한솜으로 천진일호(天津一號)가삼키로에 오원오십전까지 올랏던것이 오원으로 떠러저서 자리를잡게되엇습니다 울솜갑은 작년의사원 오십전에 비하면 일할가량 버싼셈입니다。일키로가 이백육십유몸메 즉 스무엔냥엿돈쭝이니까 삼키로면 팔백몸메가량이되며 솜오문는열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적면(赤綿)은 삼키로에 삼원삼십전 적면이란것은 목화가 땅바닥에 떠러젓다거나 가지가느러저서땅에다엇거나해서 흙이무든것이라 버지하야치를붓하며 탄면도적고 품질떠러진면 방적회사에서 나쁜솜이 석겨잇기도 합니다 어것은 성유가짧으니까 오래못갑니다 그러나 갑시그만큼쌉니다 그리고도 제일나진솜으로는 헌솜을 트러서 새것처럼한것인데 이거야말로 와전한재생면입니다。

비단솜(絹綿)은 그냥솜보다비싸서 삼키로에 칠원내외합니다 그러나전에 팔원팔십전하던것에 비하면 떡 싸진셈입니다 어것은 비단솜가운데에 삼할가량의『스테이풀』솜이 석겨잇는편게인데『스테이풀』이 석겻다고해도 보기에는 조금도 다를것이업고 여전히곱습니다。

비단솜과 그냥솜을 비교해보면 갑은버찌지만 보통솜보다보온이잇스므로 가볍고따뜻한이부자리를 맨들수잇스니까 결국 이편이 나은셈입니다 그러나그 범솜처럼 부푸러오르지를 못하니까 요시솜으로는 부적당하며 이불솜으로 쓴다할지라도 속에는 보통솜으로하고 거죽만비단솜으로차서하면 떡조흘꺼에요

그다음에는 솜의대용품으로쓰는『카포크』인데 삼키로에 유원오십전입니다 어것은 열대지방에서나는 식물의열매인데 요에만히쓰입니다。속에는 어것으로하고 거죽는 솜으로차서놋는데 가령스무장의 솜이든다면『카포크』열덕장에 그나머지는보통솜의 비례로하면조탑니다。

아므로는 인조솜 즉스테이풀을 파이버—의솜을 쓰게될형편인데 아직어서장에 고루돌지못하고잇습니다。봉명으로나 탄면으로나 보통솜보다 못하지안흐니 걱정은마십시요。

어름속에든사람

## 人間氷柱

미국『애틀란틱·씨티—』에서 얼마전에열린 전기발람회는 사람대신 빙주(氷柱)란는것이 나타나 대인기를 바덧다합니다。

빙주란는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와가티 어름속에 화초가튼것이 드러잇는것이보통인데 이것은 사람대신 정말사람이 해수욕복을 입고 꼬부리고드러잇는것입니다。

무대 우에잇는 것이면 요술 이라고도 하겟지만 바람회판 한쪽구석 사람이내왕하는 길목에다 해노핫스므로 엉터리 아닌것은 누구나알수잇섯다합니다。벌거벗구서 어름속에 채어잇기란 사람의일이아닌것갓기는하나 당자는 예사라여엿다합니다。이러케 사십오분동안 하로에 한번식견디고나오면 일주일에 삼백불 하로 두번하면 오백원식바다면 녹초가되는 모양인데 는그도 한번흥행을하고 나운에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위스키—소—다—한잔 마시구서는 금방기운이 도라섯다고합니다

【사진은 어름속에든 사나이 그아래는 기운을차리느라고 위스키—를마시는것】

## 날이선선해진요즘 차게재우지맙시다

### 언제나어머니의부주의로탈이나 소아결핵은가을에만어

요즘은 조석으로 매우선선해젓습니다。여름에 만흔 배아리설사가 좀 머저서 아이들이해결 정신을 차리게됏습니다。그러나 가을철엔 또이철기에나기쉬운병이잇스니 역시주의를게을리할수업습니다。선선할때를기해쉬운것은 우수운것가든다 어감긔입니다。

초가을 아이들이 감기드는것을 잠자거나 해주면 곳 기판지염이나 폐를 상해서 소아결핵이되기쉽습니다。여름동안 소화불량으로 통시약해진 아이들일수록 주의하지안허서는 안될것입니다 초가을에 감기드는것은 대개 흔히 밤중에 통후기거나 엇뭇에로 밤에자게자서 되는것인데나 제는 덥고 밤에도 초저녁엔무더운기운이 잇스므로 별로이불을 덥지도안코 자다가 새벽녁에가면 온도가 내려서 아조선선해지니 그만감기가 드러버리는것입니다。이러케 감기가들면 흔히 곳돌을 흘리거나 언불여가다를 이르킵니다。

밤에차게 재우지안는데 겨우 배에다만 포대기를 돌돌마러재워서는 별로소용이 업습니다。아무래도 다리와발까지 따뜻하게해주지안허서는역시감기들기가쉽습니다。

그러므로 배두룰것을 해주고 그우에 서양식의 바지가잇는파자마를 입혀재우면 조흡니다。하여튼 미례입히는 바지는 길이가 길어서 발을차면 좃코그냥아괴 버러지는 자리옷은 자다가 배를드러내노키쉽습니다。

날이선선해지면 피부의 혈관이수축되고 배속에 내장에 충혈이되기때문에 소화불량도되기쉽고 감기 비탈가다루 신장염을이르켜서 코가때히다든지 설사 오줌이작거든 잇다든지 하면 곳 고처 주도록 해야합니다。

가벼운 기침가튼것을 할때는 곳 고처 주도록 해야합니다。그러치안흐면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기판지가다르가 되고 저항력이약한 까닭에 백일해나 디푸테리아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이러케되면 첫때이어린애는첫을 물려도 곳 빼노코 기분이 조치못하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때문에 여위여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조그만 기회에도 곳폐염을 이르켜서 생명을 빼앗기는수도 잇스니 어쩌든감기라고 등한히 역이지마시지요 만일 이상에말한증세에 한두가지 증세만 보혀도 이내안정시켜주고 소화가 잘되면서 영양분이 만흔음식을 규즉적으로 먹일것입니다、인후염엔 습포를해주고 거뭇하렴 배를따뜻이해주고 거뮨지 여도은 가슴에 깨끗한 수건으로 두어번 감어주고 열이만흘때는 진찰을 바더야합니다。

어째든 밤에 차게자지말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간 애를쓰지 안코는 애들이밤 이불을 차내 던집니다。주의에달렷스니 주의하십시요。

또 자기전에 무엇먹어지말고 아침에 어러나서 마른수건으로 문질러주면 피부를 튼튼케하는데는 그만입니다。

자게자는것외에 방가른데모간울 시키고 갑자기 찬바람을조여도 감기가 듭니다。어째든감기들리지안케해주십시요

## 본살결의미는 세수하기에달려

### 실쑤는늘비누쓰는데서

요즘은 표면적으로 화장만하는것보다 본살결을 아름답게할려는경향이 만습니다。본살결을곱게하자면 아모래도 세수할때부터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물—세수에는 먼저물의성질을잘가려야할것입니다。보통 수도물이조흔데 도회지에 잇는사람이흑다른데 려행을해서 우물이나내스물로 세수를 하게되면 얼골이빽빽해지고 거칠어집니다。그것은우물은 경수(硬水)로써 유기물이 만흔까닭에 비누가푸러지지안코 또얼골에때가 잘빠지지안코 그냥남어잇기때문에 살결이 거츠러집니다

그러므로 세수물은 되도록보드러워야하는데 그러자면 봉사(硼砂)를 한사시쯤 세수시물에 타서쓰면 물성이 조와지고 비누도잘풀립니다 이봉사는 각약국에잇고 도십전어치만사면 페만습니다 만일 봉사가 업거든 한번끄려서 식혀써도 조흡니다

비누—세수비누는 되도록좋겁어 조흔것을 써야합니다。갑이 헐한것은 큰희근희해가지고 살결을 맹치니까요。목까에 가서도 세수비누와 목까비누를 따로쓰면좃습니다。목까비누는알카리성이 만흔 강한것이라도무방하니까요。

가루비누—가루비누면 종류가 대단히만코 또그성질도 다각각다르지만 제일조흔것은 알겨인데 이쌀을 주머니에 너허가지고 흔들어서 쓰면 피부의영양도주고 윤까도됩니다。겨는 전분과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햇기때문에 세겨로 가벼 자서 호웨어쓰면 피부가 거칠지안코 곱게됩니다。

그러데 겨에도 석회가 석기나 발효하기시작하는 오래된거는 쓰면안됩니다。또는 한번쓰고난겨주머니를 저즌대로 그냥두엇다가 써도해롭습니다。

어것다고하는분이 잇는데 그것은 날마다 새것으로 하지안코 상한것으로 세수하기때문입니다。얼골에 비누를 질르지말고 겨주머니로 씻게되는것이 저서들 오래동안 얼굴에 바르고 둥둥것이아니라 곳 씨처버리어야합니다。

씻는법—화장을 지울때나 몹씨 더러워진때는 처음부터 겨로 씻는것이 아니라 먼저 세수비누로 말금이씻고그다음 겨로 씻는것입니다。얼골에 기름기가업고 거칠어지기쉬운분은 그냥비누나 겨로 세수하면 도리어 더거칠어지기쉬우니 먼저 콜—드크림으로얼골을 꼭꼭 문지른다음 수건으로 땀끔이 흥처내고 그다음에 비누나 겨로 세수할것입니다。다 다씻은다음엔 곳 콜—드크림을 엷게 바를것입니다。

## 우리차지

할수업서서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나폴레온은 왜알푸산을 너멋든가』

하고 무르시니까 영환이가 대뜸이러스러니

『네 그때는아직터널이 업슬적이니까 할수 업시 그랫지요』

(공주사립 하민석)

## 양복때문의난리는 참말래년봄부터

### 올가을까지는문제업다 감갑보다부속품이올라

지난사일 부민관에서 한성양복상조합(漢城洋服商組合)의 총회가 열렷섯는데 그때에 어러한 이야기가 낫섯습니다。

현재 경성의각나사점에 장여잇는나사는 거지반 올이월경의 게약품인데 소위『스·파』이할혼방시대의 제품입니다。재고품의 정확한수짜는 말할수업스나 작년이맘때와 거기가튼정도라고 볼수잇습니다。그리고 순모품도잇는데 대체로 금년의매출품은 순모품과 혼방품이 어슷비슷할셈입니다。갑은 작년에비해서 순모는삼할 혼방품은그전갑시나또일할로오릅니다。그러나 안감、부속품이 상당히 노파젓스니까 양복을 지어노코 보아서도 일할로부터일할반은 비쌀것입니다。

모든물까가 올랏스니까 더구나 양복은 말할수업시 올랏스며 나사도 인제는 동이낫스려니하고 일반이생각할것인즉 양복제조업자는 이점을 잘생각해서 나사의 재고품은 아직도 나마잇다 양복갑슨그러케오르지 안헛다하는것을널리알도록 노력하지 안허서는 안될줄압니다。

그다음으로 내년봄양복감에대한것인데 나사점과각모직회사와의게약시기니까 각기주문해노흔것입니다만 물론『스파』이삼할혼방입니다 갑슨 금년봄보다도 퍽식비싸질것이고 또게다가 수량도상당히 제한되게되엇습니다。압일에대한것을 미리예상해 말하기거북한일이나 양복감의기근은 내년봄부터라고 볼수잇습니다。

## 해열제로쓰는 지렁이

예날부터 지렁이는 해열제로쓰는데 그러키때문에 한약국에선 지렁이 말린것을 약으로파는데도잇다한니다。

이제 어 지렁이를 분해해보면『지로겡』이라고하는 일종의『아미노酸』이지렁이의몸가온데잇는것을 알엇습니다。

이것이 해열되는데 효력이잇는것인데 파학적으로 증명되엿습니다。지렁이를 먹는데는 어른은 중간쯤되는놈을 네마리、아이들은 두마리、어린애는 한마리정도가 적당합니다。

長篇小說

## 愚氓 【125】

朴泰遠 作
洪祐伯 畫

세가지일 (8)

그로서 닷세가 지나 근동위는 다시 홍서방네 집을차젓다 먼첫번에 왓슬때、이제 며칠잇다 편지로 기별을 하거들랑 직시 큰딸 금순이를데리고 올러오라—、그러케 말이 잇서 그 요량만하고 잇던 홍서방네외로서는 좀 뜻밧기엇스나 근동위가 또금순이를 자기 혼자서 데리고 상경하겟다 선언하는데는 잠깐동안 서로 어이업시 얼굴만 마주 바라보는바게 업섯다。

그러나 한번 백백교를 맛젓다 맹서지은 몸은、대원님의분부를 고마웁게 밧자오는수밧게 업다。

홍서방내외는 새삼스러히 당황하엿다。더욱이 아낙 장씨가 그러하엿다。

이제 나이 열일곱─、아직도 어린 저것이 대체 혼자서 서울로 올러가 인생의 가장 크나큰 일을 어떠케 치르겟다는말인고?—、잠깐 생각하여 볼뿐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아프고、안타까웁고、또 가진 애가 싸였다。

그러나 또한 어찌 하는수가 업는 일이다。장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려는 근동위에게 대고、

『그저 시골 구석에서 아무것도 배운것이 업는 어린년이라、무슨 범절을 알겟습니까? 저이가 따라 나서서 일러주고 보살피고 그래 주엇스면 그래도 좀 나을란만 대원님 말씀이、아직 저이들파는 상면할 시기가 아니라하셧다니、그도 하는수업는 일이고……、그러니 그저 선생님께서 고마우신 마음으로 저것을 친딸처럼 아시고 모든일 실수 업도록 하여주십시요。오직 선생님 한분만을 믿습니다요。참말 선생님한분만 믿습지요。저것이 글세 인제 겨우 나이 열일곱이니、알지두 어린애가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촌구석에서 자라나서 무얼 압니까? 그저 어미된 저라도 좀따라 올라갓스면 합지요만 그건 안된다고 대원님 분부가 잇스섯다니 그럴수는 업고……、그러니 그저 선생님 한분만 꼭 밋습니다요。부디 저걸 친딸가티 좀 아시고서……』

한말을 또 하고、또 하고、그래도 종시 마음이 놓히지안어서 눈물이 글성 글성한 눈으로자기의 얼굴만 치어다 보는 장씨를、

『네—、그러시지요。웨 염려가 안되시겟나요。허지만 모든게 다에가 씨시겟지。어 그냥 여여집에다 맷긴다든 그러는게 아니라、이제올라가는 직시로、저에 아프로만 잡혀게와 숨은 할미하나가 차저 오는것도 아니고、대원님을 모시다는것도 무어 그리 어려운게 아니라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원님의뜻만 밧자오면 되는것이다。……아아무럼 나도자주 이애소식을기별하여 드리려니와 이재수히 서울서 부녀、모녀가서루상봉할날이 이르리다。그저 아무염려말고 그때만 기다리시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으로 딸을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노히리업다。새터 차부(車部)까지라도쫏차가 보겟다는것을 홍서방은가까스로 단념시키고 자기만 따라나서는、

『얘애、금순아。』

마지막 집을 나서려는 딸의 손을 잡고、장씨는 눈물부터 아플 가린다。

『그저 몸성히 잘가잇거라 그리고 모든걸 조심해 해라 그저 조심해서……』

일러주고시픈 말이 얼마든지 만타는것을 새삼스러히 깨다르며、단 한마디를 더 생각해내지 못하고、그냥 멀리 보내지 안흐면 안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고 또 슬펏다。

(나는 못 가더라도、애아버지나 서울까지 따라간다면 얼마나 조흘까?……)

그러나、홍서방도 새터 자동차부에까지 밧게는 더 못쫏차


# 第20回 學生美術展覽會

會期 十月中 場所 本社大講堂

出品種別
◇中等部 —師範部·中學部—
東洋畫科
西洋畫科 —圖案畫包含—
工藝科 A、彫塑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狀 副賞 二十圓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牌 副賞 十圓
◇特別褒賞 本社社長賞 一人百圓 (中等部、初等部作品中에서一點을選하야授與함)

◇申請及搬入=申請과搬入은 同時에하되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로 期日은 九月二十七日까지
◇出品規定=本社所定의 申請書에 各項을明細記入하고 作品 背面에도 申請書에 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 作者氏名 住所와 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 明記하야 搬入할것 (詳細規定은 規書로 問議할것)

主催 朝鮮日報社



## 肺病全快體驗談

# 有田藥을服用하면서 自然療養을하고 只今은이와가튼元氣

全快者 渡邊まさ様

姙娠七個月된몸에 感氣를걸리고 얼마를지나도 아모리해도낫지안코 異常하게되어서 食慾은減하고여위기만하는故로 醫師의診斷을바닷든바 肺尖이나쁘다고하는데 더욱놀나서 一層더重한患者가된것처럼생각이되엇습니다 主治醫도 질것는病이니까 悲觀치말고마음을노코身體를安靜히하야 될수잇는대로 滋養物을攝取하고 養生하라고親切히 注意를식혀주섯스나 一家의主婦로서여러子女의어머니로서 或不幸한일이나잇스면큰일이라고 마음이焦燥햇습니다 焦燥하면 焦燥할수록 熱은 점점 놉고 食慾은 減해오므로 家族은勿論親族까지 걱정을 해주섯습니다 그래서 問病온 親族집세시가 前에 肺病으로 苦生을하다가 完治되야 健康케되엇스니 꼭 有田ドラッグ藥을 먹어보라고 勸告하엿으므로 바로有田ドラッグ專賣所에 相議하러갓습니다

主任의 말삼이 肺結核이라는 診斷이 내렷다고 決코 悲觀必要는업다 一般으로 어病을 極度로 무서워해서 어것저것해매기만하는故로 나올 病도 잘안낫는수가잇다 첫재 病을 正當히 理解해서 養生法도 天地自然의 恩澤을適當히맛고 精神 食物等에도 注意해서 藥을服藥하면 낫는病이라는 말을듯고 有田音松氏鑑製의 別製治肺劑와 血液素를사가지고 왓습니다

이藥을먹기始作할때부터 나는이病을꼭곳처야되겟다고 決心햇습니다 그래서 高熱인때에는 絶對安靜을직히고 室內의換氣가잘되게하고 日光이잘들게하야 養生에힘슨結果

### 養生과良藥

의恩澤으로그러케놉든熱은 次第로내리고기침도漸漸안하게되고 盜汗도안나고 밥도맛잇게먹게되야 無熱이되어서부터는 조곰式外出을하고 每朝日出前에 起床하야朝陽을바드면서 公園을散步하고그다음에 밥을먹고 副食物은 主로新鮮한野菜를 攝取하고 된장국을먹고 또鷄肉과 野菜를 混合한수—프도 만히먹엇습니다 이러케하야 根氣잇게

### 服藥과養生

을勵行하는동안에 體重이늘고 全快햇습니다 그後出産을 햇스나 何等의異常도업고 漸漸健康해저서 家事에 힘쓰고잇습니다 肺病이나 肋膜炎으로 苦生하는분에게 변변치못한나의 體驗을 말삼드리고 參考에 供코저하나이다

名古屋市中區南長石町八二 全快者 渡邊まさ

## 自宅療養讀本

肺 肋膜患者때문에 自然力應用의 自宅療養에 必要한方法을詳述한 養生書를 最近代無呈進합 下記各地의有田ドラッグ專賣所로 直接來訪하시든지 遠隔한분은病狀을 詳記해서最寄의有田ドラッグ專賣所又는 發賣元이나 本舖로申込하시압

無代呈進

# 肺病くろまる患者は

京城 郵便本局前 龍山鍊兵町
平壤本局前 釜山幸町一
群山驛前通 全州高砂町
光州本町三 木浦榮町二
大邱元町 馬山京町三
麗水港 鎭南浦漢頭里
兼二浦本町 淸津本町
海州南本町 羅南生駒町
咸興本町二 元山本町三
新義州常盤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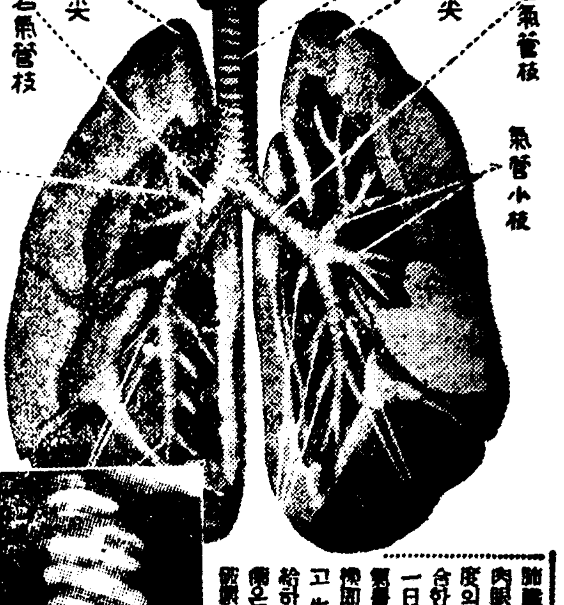
# 有田ドラッグへ御相談あれ

本舖 大阪上本町六丁目 發賣元 東京日本橋通三丁目 大阪心齋橋南詰



# 藥이업서도 肺病은

## 自然의힘으로낫는다





肺臟은 肺胞라고하는 肉眼으로는보이지안는 微細한囊의 集合한것으로서 肺臟은 一日에約六十石의 空氣를呼吸해서 가스交換을하야 血液의 洗淨을하고 生命力을强케하는것입니다 結核菌은 이重要한肺臟을 侵蝕하는것입니다

人體에는病을 自然히防禦、治癒하는힘이잇습니다 이것을自然治癒力이라고합니다

그것은血液中의 白血球와血漿에依하야 侵入한病原菌과有毒物을喰殺하고 또는이에對抗하는抗毒素를發生해서 그病(빡테리아毒素)에對해서 免疫性을具備시키는바自然에對한 防禦力이요治癒力입니다

人間은나서 二十歲까지에는두구나한번은結核菌의 感染을밧게되는것이며 自然防禦力이旺盛한 사람은發病하는일이업고 假令病에걸렷다할지라도 不知中에나아버리는例가만습니다 비록發病했을지라도自然治癒力이 旺盛한사람은短時日에낫는것입니다

따라서結核의 豫防上으로나治療上으로도 自然治癒力을强하게해두는것이緊要합니다

### 肺病의治療에 劑藥이必要한가

그러대한번結核病과가튼 全身에影響을미치게하는病이면 體內모든臟器의 機能이 衰退하고 自然治癒力도衰退하야 治癒가困難케되는故로 먼저此等衰弱한諸臟器의 機能을直接援助해서 體內의治癒力을 强케하는때문에藥의힘을 빌지안하면안됩니다

그러면어떠한藥이 第一조흔냐하면體內의諸臟器에 直接作用해서 機能을旺盛케하고 自然治癒力을强케하는有力한藥品을 多數配伍한것이 가장조흔것입니다

有田ドラッグ有田音松氏鑑製의治肺劑는多種多様의 靈治效能이잇는高價優秀藥의合理的配合에 依하야 自然治癒力과防禦力을增强하게하야 治療의目的을達하는作用이잇는許可濟의治肺劑입니다

# 智異山探險記

## 智異山行第三日—(十一)

## 雙溪方丈의 星夜

⑪ 李殷相

入相殿[illegible]의 晩鐘소리로 寶鑑의 鈔響을 짐작한 뒤에 다시 八詠樓에서 한 술기만은 바람으로 孤雲의 仙蹤을 헤아려보니 문득 울려나는 雙溪의 저녁 鐘소리에 無限한 情恨이 부질업시 머리를 친든다。人間에 매즌 번거러운 緊을 이저버리라는 鐵소리언만 그러것이매 도리어 매듭매듭이 더괴로운것임을 어찌하랴。

[illegible]이 서작되면서는 金堂을가티 느릿느릿 걸어드는 어둠이러니 八詠樓앞 寶階를 거니는사이 寶殿은 문득 洪水처럼 숨겨도 밀려든다。

天王門 頭頂에 불이켜지을 보면서 寺門밧갓 旅舍로 돌아와 一行과함께 혀우는 처에서 저녁끼니를 먹는듯 마는듯 나는 다시나서 고요한을 즐기려고 寺門안으로 올라갓다。

어느구석엔지 섞인 [illegible]한끄레 홍을모아자 古寺에 기퍼오는 방울더리고 禪人가티 사랑하다가 住持和尙과의 約束이는 저가기로 벌고이러나 그의方丈을 두드리엇다。茶를마시고 기다리는 湯槽의 [illegible]고 다시繩索가 [illegible]하야 [illegible]의 [illegible]을 지나가는하다。

아래旅舍부터 올라오는消息이 지금한 一行들은 [illegible]로 [illegible]을 멀리다한다。路中의疲困, 塵世의煩惱를 푸는 方法도 가지가지다。저들도하여금 [illegible]의 술기운에서 이밤의 [illegible]을 즐기고한다。나는나대로 方丈의 [illegible]光아래 道友로부터 어밤을 보내리라。

明月[illegible]八詠樓
孤[illegible]
[illegible]三[illegible]外
[illegible]

라한 [illegible]氏의 八詠樓詩를 외기도하고

白雲前[illegible]
明月東西[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어이것도 [illegible]다。[illegible]에 [illegible]기러간다 억그저 [illegible] 하니 수 고풀지안케 [illegible]하야 스스로 [illegible] 離人이 [illegible] 저보고 또 [illegible]이서 [illegible] 자지도록다 가이서 지금[illegible]다 면 [illegible] 分揀키 어려우리라

智異高高三萬丈
上有[illegible]本如[illegible]
有一草庵雲作[illegible]
有僧白[illegible]
松葉[illegible]或沽[illegible]
[illegible]
喃喃念經千百遍
忽[illegible]寂然[illegible]
三十三年不下山
世人那得[illegible]
花開花落了不省
雲來雲去只同閑
文約[illegible]
[illegible]
此僧名字[illegible]
烟[illegible]山色
太白[illegible]共疑
少林面壁[illegible]測
吾聞[illegible]人[illegible]定
無乃高[illegible]

(註, [illegible]는 第一의 [illegible]) 이時는 [illegible]山에 第一이 [illegible]이어니와 第一이 [illegible]七師의 사이에 [illegible]이잇섯던 어라, 이時가 오늘밤 어지러에와서 더한層 [illegible]나라냇다。밤은 점점 기퍼간다。「[illegible]心[illegible]不[illegible]」이라한 [illegible]師의 雙溪詩句가 決코 허된 文字가 아니엇던을 알겟다。

달지고 별만남아
雙溪에 나리는데
어슬에 저즌바람
方丈으로 도는구나
가슴에 잠업는나그네
받기풀을 울타라。

방안에 허으름이
예佛이나 되엇는지
窓前에 재운기틈
牛남아 슬엇구나
山僧은 말업시안젓다가
불을도둑 나주더라。

(高眞은 雙溪寺八相殿)

## 九月創作評……(三)

# 作品의 餘韻과 緊張

李源朝

나는 前一回에서 鄭 韓兩氏의 創作態度가 弛緩狀態에 이르것을 指摘햇는데 金南天氏의 『무자리』(朝光九月號)를 읽으면서는 이러한

**印**象이 一掃되엿다。첫場面에 김용이 衆人環視中에 이러서서 不斷力하고라도 上級學校에 가겟다고 志願하는 緊張된 少年을 나는 이作者의 化身으로 한번 그려보앗다。事實 이作者의 지난 一年間의 創作生活이란 어떠한 緊張속에서 지나온것이며 또한그러한 緊張때문에 刮目할만한 進展이잇섯는것을 우리는 敬嘆해도 조흘것이다。

그리고 이作品을 읽어보면 어作品의 成敗는 姑捨하고 우선 어作者의 緊張된 創作態度가 끗까지 풀리지아니한것은 읽는사람에게 여간한 快感을주는것이 아니다。그러나 作品을 이야기하기전에 作者의 創作者의 創作態度만을 가지고 是非를 넘두하는것이 能事가아니겟슴으로 이러한

**創**作態度에서 우러난 作品의 成果는 어떠하나 作品을 말하지아니하면 안되겟는데 첫재 이作品의 全體的印象으로보면 潤澤한맛이 不足하다。作品의 재임재임이 빈틈이업서야할것은 勿論이지마는 그러케 재이면서도 上乘의作品이란 항상 기름끼나 흐르는 무르녹는맛이잇서야 그作品이 餘韻을 가지는것인데 이作品에는 그러한 潤澤한맛이업서 사람으로치면 경우만밝키고 핼비는 깍장한사람가터서 아무런 餘韻이 업는것이 섭섭하다。이야기를 이러케 끄집어내면 혹시 남의作品을 함부로 헐어서 빈정대는 사람이잇을지도 모르지만 이말을 일부러 하는것은 내딴은 어느정도 作品에 對한 두게의

**契**機가 숨어잇다는것을 말하고저함이다。그두가지 契機란 첫재는 이글 첫머리에서 말한 作者의 緊張된 創作態度가 [illegible] 創作以前의 [illegible]한 「그릇」에 [illegible]

裕와 潤澤이업다는 事實이오 둘재는 이러케 潤澤이 不足하엿슴으로 유용의 上級學校에 志願하는 唯一의希望이던 누의가 姙娠을햇다는 事實에서 水泡로 도라가는 場面을 그리는데 이르러서 아래방 어머니와 누이의 몃마디안되는 對話속에서 少年의 꿈이 餘地업시 깨여지는 光景이 비로소 光彩陸離한 効果를 一層 더 빗내엿다는것이다。

**人**物이다。그러나 이作者의 取扱하는 少年이 作者가 近來에 질겨 取扱하는 少年과 妓生과 阿片쟁이는 이 항상 너무 早熟한 嫌이 잇지아니한데 이作品에 나오는 少年도 亦是 그러하면서 더구나 墮落된 狀態도 그러진때문에 作品을 읽으면서도 늘 잠조치는듯한 不安定한느낌이잇섯는데 그누의와 어머니의 또틈이 하는 몃마디의 對話가 이作品의 全體的大團圓을 짓게하면서도 그場面의 描寫가 吃驚한때문에 作品의 氣息이 一轉하게하는것은 手法上으로보아 여간 훌륭한것이아니다。그러나 여기까지 네려온 作者가 갑자기 氣錯햇는지 結尾가 너무 草率햇다。실상은 아직도 더남엇스려니하고 읽다보니 그만 끄치낫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것으로 끄튼아닐터인데 하고

**疑**訝까지하엿다。그러나사실 그것으로 끄치고보니 作品은 꽁지빠진새가티 되엿다。유용이가 上級學校갈것을 斷念하는것으로 大團圓을 삼는데는 異議가업스나 그斷念하는데가 이作品과 거리서는 아무래도 싱거기 짝이업다。그리고 또한가지 말해야할것은 유용이 아버지가 죽어 通夜를하는데 화투와 마짱판이 버러젓다는것은 여러가지 事情으로 推察해 회투나 투전판이 버러젓다면 몰라도 마짱까지는 너무나 格에맛지안는다。어려한 적은點이 그作品의 實際感에 關係되는것이므로 말하는것이다。

## 映畵時感

# 映畵文化論

## —最近朝鮮映畵企業의 變態性—

⑤ 徐光霽

所謂朝鮮의 最近 映畵企業이라고하는것은 아조變態性을띤것으로 自身의經濟力과 技術로 朝鮮映畵를 成長시켜 나가겟다는 아니하고 商業的宣傳과 興行ㅣ가的手腕으로 언기內地의 映畵會社와 結托하고 無條件으로 技術援助를 바러가며 經濟的으로도 多少의支出을하야 映畵作品으로 利益을 꾀꾸는것이라 할수잇는 朝鮮의것을버리고 남의 바라가서 合作자는것이 이는 簡單도아니며 企業도 아니며 아무것도아니다。

우리들은 [illegible]

文化에對해서 못올드려보자。그러므로써 變態的인 朝鮮映畵製作界가 바로잡힐것이라고 밋는다。

朝鮮映畵를 藝術的으로 노핀다는것은 大企業의 形式에잇는것이니 映畵는 結局그時代의 文化의 價値를 喪失하거나 企業性을 일코서는 生命을 維持할수업다。

映畵가 企業的으로 커간다는것은 거기에 比例되는 觀衆을 엇는다는것이다。[illegible] 世界大衆을 相對하게될때 映畵는 企業으로써의 本來의 性質을 發揮的으로 [illegible]시키는것이다 [illegible]이나 朝鮮의 映畵는 어떤 [illegible]

재미가잇서야한다 이것이 映畵에 第一의 生命인데 朝鮮映畵는 하나도 재미잇게 보아진게업다 우리는 이點에 크게留意하여야한다。

朝鮮映畵界는 監督보다도 몃개의 女俳優를 만들기에 힘써다 그러타고 貧弱한 女俳優가 하나도업는것이 朝鮮映畵界다。俳優의生命이라고하는것은 두말할것업시 顔面의 바라이에티가 잇는데서 決定된다 더구나 토ー키ー에서는 聲優와 俳優의顔面의 바라이에티가 全生命 이다 그것은 토ー키ー는 롱그撮影이 적은까닭이다。

監督은 거러가도 女俳優는 自働車를태우고 男俳優의衣裳은 제것닙의것빌려다입어도 女俳優의 衣裳만은 새로해다해주고 貧弱한 朝鮮映畵界서라도 한作品에 數百圓씩 갓다쓰는것이 女俳優인데 그래도 내세울만한 女優하나업다는것은 映畵監督들의 罪라고만 할것이아니라 아직도 文化라는것이 朝鮮에선 채신 뒤진고 俳優라면 賤業視하는 데서잇다고 볼수잇다

女俳優에잇서서는 演劇이 오히려 압섯다。좀더敎養잇는女俳優를 자저내는것이 朝鮮映畵製作의 큰일이다。

理智的이고 現代的魅力이잇고 敎養잇는女俳優를 나오게함에는 좀더映畵企業家라는사람들이 眞摯한態度로 映畵事業을 해나가는데잇다고본다。아직까지도 朝鮮映畵界는 滄海의木船이라고밖게볼수업다。

監督이나 撮影技師나 男俳優보다 女俳優하나를 重要하게보는 映畵企業家라는者가 朝鮮映畵製作界에잇는限 朝鮮映畵는 絕對로 質的向上은아니된다。

女俳優하나가 映畵製作을하는것은아니다。女性이 貧한朝鮮이아니거늘 十餘年의歷史를가즌 朝鮮映畵界가 한개의 이러타할女俳優를 갓지못햇슴은 어이한연고인고?

女俳優가貴하야 한두번 그사람을 쓰고써내리줌에 이름이오르나라면 自己가俳優의 素質이 豐富하고 제가 映畵를맨드러내는것가티안다 옴며겨자먹기로쓰는舊을 왜모르는가? 아무리朝鮮映畵의 監督들이 모르다거니한들 女優를조하서 쓰지는안는다 朝鮮에도 現代佳子와가튼 敎養이잇고 工夫를하는 女優는한사람이라도 나오다면 朝鮮映畵의새로운收穫이 잇슬줄안다。

朝鮮映畵는 아교로 사러나가고 過度的으로 길들거러나가지안흐려면 無能한一個女俳優主義의 映畵製作을말고 監督이 專橫을하야 作品을 만들지말고 프로듀ー서ー制度를 確立시키고 映畵가 文化事業인만큼 直接間接으로 모든方面의 文化人을動員하야 朝鮮映畵를 企業的으로 發展시키는데잇다

映畵는 벌서現代人의 娛樂와가티 한개의常識이되엿고 엇지못할 몸건이되엿다 어現代人의 嗜好物은 가장새로운센스의所有者가아니면 맨드러낼수업는것이다。映畵企業이라는것도 映畵大衆을 同伴시키는것이다。어映畵大衆을 數字的으로 늘릴 朝鮮한映畵企業家가 朝鮮에잇는지? 한사람이라도 잇다면 朝鮮映畵界를爲하야 朝鮮의映畵文化를爲하야 기뻐할노릇이다。(끗)

## 九…月…斷…想…(上)

# 「宵待草」

金文輯

A、C、B는 우리女流文壇의 花形들이다。모두를 내누이동생파가티 사괴오는터라 승허물잇슬理업다。

그래 어제 뜻하지안코 이셋님을 한자리에 모시여 茶를마시는마당인데 燦爛하게도 나는 그들로부터 辱說의攻擊文을 비뎟다。三對一의 運戰이지라 하는수업시 나는 그냥 벙긋벙긋웃고만잇섯다。바로말하면 그들여 고양이와도가티 떡 귀여웟다。

번갈라가면서 된말 안된말 그저 나오는대로—우흥우흥 말우으로 실건 해재기고나드니 그中의 『永遠의野生處女』란 別名을어든詩人 A가 例의雄辯家의 제스추어로 卓子를 탁!치면서 하는말이

「그래 김선생! 적어도 우리한테 이러케 辱을 어머먼던黃藥光으로 생각잔아요?」

하니까 내對答이 밋차 나오기前에 그와마조안진 小說家B는 『餘韻업는 破鏡』이라고 形容할수잇는 奇數의 女主人公이지마는 이뽀족한女人 急하다시피 내뽑畵를奪取해서 외질르기를

『여보! 당신은 아직 김××씨를 잘모르니깐그래。바늘끗만침도 辱이 귀에 안드러가는걸 어떠케! 辱을하든 충찬을 하든 相關업시 그저어러케 女子처테부러 안자서 瞬間瞬間의 所謂그 『총각의 고독』을 고마까스하문 그만이라니깐그래……』

『니야!』—이러케 셋재로登場하는女優가 亦是小說家인 C。정말女優보다도더 肉感的 表情과 『제스추어』로서 間或異性을蠱惑케하는 性格的餘技를 가진는 다와가튼 一家見을 披露하는 것이엇다。

『저이에게는 苦痛은 잇오되孤獨은 업서! 고독은 精神的이지만 고통은肉體的이 아니야?』

이른바 『그말은 反對야! 肉體잇는데精神이 잇고, 苦痛어잇는데 孤獨이 잇서서 김××씨는 재주가 너무××데다가 ××이너무만키때문에 그孤獨의形而上的苦痛을 넘어서 形而下的으로 觀察되는거지』

『어디하나 紹介해주리』

비로소나는 입을 벌렷다。허니까 B破鏡氏 그餘韻업는 얼굴을 貪血的으로 접프리는양 손꾸락을 잘마잘마 흔들면서

『저게 흉텟다는거야!』……

果然나는 假定을 해노코잇슴라니까 突然話題가急轉하는가햇드니 누구의 입으로서인지 『宵待草』(ヨヒマチグサ)라는 映畵의 얘기가 터저나왓다。아니 그어얘기가 터저나오기前에 띄엄띄엄엿다는편이 압호리다토아 서로 먼저한여고야단들이다。

金某를한마리강아지가티 잡아먹은그들 新時代의 花形女史들이 모두띄엄띄엄엿다고하는그映畵。——이미 零코마以下로떨러진나 가엽슨金某 어찌興味를끄을지안햇스리요。——그러나, 가서나도 한번 띄엄띄엄어나보자…。

그映畵 『宵待草』를 求景하러M座에갈양으로 茶房을버리고 혼자도라와보니 奬書, 封套, 雜誌等如例의 郵便物이 六七件와잇다 그中의 桃色角封套하나가 初見의 姓名이엇다。微笑로운 얼굴로 띄서읽어보니 內容인즉 大

[illegible] 여달「[illegible]光」에 [illegible] 나의 [illegible]스를 [illegible]와서읽고 를 고향에도 못다울어서 드디어이때케「上海」를 울린다는 [illegible]의[illegible]。女性[illegible] 어러케 우는이야기를 [illegible]엿스니 오늘밤은 [illegible]上 나도한번 아니울어서는 안되게쯤 되엿다。그래서 얼른 M座로나갓다 [illegible]를하라니까 下女가 손님이오섯다고 告한다。名[illegible]바다오라니까 미데서「チイショウ」라는 [illegible]소리가 듯긴다。[illegible]。뜻은수도업섯기에 그[illegible]저서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다하고 어디 우리도 [illegible]이나 하러갑세 하는 내[illegible]에 「그랍세」란 君의和唱으로 [illegible]이되여 우리는 一目M座로 [illegible]다。

[illegible]의 「宵待草」가 始作되엿다。[illegible]心[illegible]더 오히려敵[illegible]한 心[illegible]로 우리는 「ヨヒマチグサ」를 [illegible]햇다。

主題歌의 歌詞와가티 待てど暮せど—아무러봐도 어디서울엇는지 그場面을 想像이라도 할수잇는 그러場面이 도시나오질안키에 우리는 서로를 하품을 거듭거듭交換해가면서 아직 크라이막스가 나오기까지는 [illegible] 잇서야하는니라고 [illegible]大의 [illegible]를다하야 은근히 女性의 [illegible]를 [illegible]하고 안자잇스라니까 어느듯 「[illegible]」字가나오자 [illegible]히 [illegible]!해진다。보아하니 [illegible] 모두를 자리를이러서는지라 [illegible]하면서 나는 지용의 눈을보고 지용亦是 검껌우스면서 「어디 좋을엇나?」하면서 자리를선다 아닌게아니라 그 [illegible]을넘은映畵의 劣態作에 多少눈물이 난지도모르다 시원한밤바람을 마자 거리를거닐면서 나는 女性의눈물이란것의 그想像을不許하는 低級作에 對해서 [illegible]을 새로히하고 또하는지용 우리의 처랑한 바다의詩人은 合詞와가티 혼자중얼거리는것이엇다。

「가을일세! 感傷의 가을일세 茶人진逢瀨、가을感傷의 懷抱이요 ヨヒマチ逢瀨、亦然일세。氣象動物女人을 恨한들 무엇하나 斗酒를 기우려 氣象을 支配하는大丈夫되세……」

그러라면 桃色封套도 가을感傷이라할가?

—待てど暮せど—가음은 말이업고나……。

# 朝鮮閨秀文學考

## ◇…黃眞伊의現代的硏究…◇

❶ 申龜鉉

어떤關係로 그들 女性에게는 特殊한 文學的生活이 업섯고 따라서 이러한 非凡한 作品도 今日에 차즐 閨房文學으로 今日 傳해오는것은 오로지 特殊한 才分을 가진女性으로 閨房生活에 연증이난 閨秀이거나 或은 特殊한階級(妾·妓生)의 女性들의것임이 틀림업다。前者로는 蘭雪軒가튼이를 들수잇고 後者로는 李玉峰、黃眞伊、梅窓、上林春같은 들수잇다。그外의 女子로서 文學生活을 한 女子는 絕無라고 할수잇다。

徐居正이 東人詩話에서,

吾東方。絕無女子學問之事。雖有英資。止殆紡績而已。是以婦人之詩罕傳。

어라하고,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婦人之職。中饋織紝而已。文墨之才。非其所宜。吾東之論。從來如此。雖有才藝之出人者。亦諱而不勉。可歎也。」

라하야, 女子가 道學精神에 配되어 特殊한 才藝을 가즌者라도 끄러는바되어 文學을 힘쓰지안흐니 歎息할 노릇이라, 云云한것은 正當한 斷定이다。妻一堂이니 賢一堂이니 女流作家를 들추지마는 그들의 文章詩歌는 千篇一律로 「道」를부르짓는 道德的敎訓에 不過하고 文學的價値는 엇지안는가 그까닭은 그들이 每日 보고 듯고 하는것이 『道』박게 업는때문이다。

그래서 朝鮮女流文學은 特殊한 手寶의 暴威미테 家庭生活로

에 [illegible]

「[illegible]人。[illegible]。毛詩。女四書。[illegible]先世[illegible]名字而小學已。不可[illegible]作詩[illegible]。[illegible]外聞、[illegible]日。[illegible]使人。[illegible]才。不可使人。[illegible]。世家大族。一二時事。不幸流傳。必列於[illegible]子之後。[illegible]之前。豈不可恥。」

「[illegible]歌曲。不可口習。如[illegible]人詩長恨歌之[illegible]。妓女之所誦。亦不可習也。」

의 두 句節을 볼수잇는데 詩調를 짓거나 歌曲을 읊는다는것은 妓生들이나 할것이오 兩班들의 子女는 할것이 아니다라는意味로 妓生들은 文學을 할수잇다는것으로 解釋할수잇고 한편으로는 道學者가거들도는 道德的生活을 [illegible]하지마는 內面에는 妓生階級의 存在와 그의 社會的特殊性을 利用하야 情的生活을 하는 二重人格의 所有者라고도 解釋되는 자미잇는記錄이다。

眞伊에잇서 妓生 그들은 朝鮮文學의 保護者이엇고 創造者이엇다。오늘 우리가 가장 豊富히 朝鮮情緖를 맛볼수잇는 詩歌는 大槪는 그들 妓生이 傳해온것이며 直接 創作한것이아니엇든가。

이와가튼 關係上 妓流文學은 今日과 明日의 朝鮮文學을 建設하는데 當然히 繼承하야할朝鮮文學의 精粹라고 볼수잇다 그中에도 이小論의 對象人物로되어잇는 黃眞伊는 그作品을 通하야 보는結果만으로도 朝鮮情緖文學에 適當하다는것을 할수잇다 이러한意味에서 그를 한낫 傳說의 人物로 取扱한 誤謬를 拋棄하고 그를 學的으로 人間的으로 正當히 研究하고 批判해야할 實在人物이다。

## 新人短篇

# 夜寒記 (四)

許俊 作
崔根培 畫

그한창에는 어려한것이 씨여잇는편지엿다 첫째 마음을노아야하우 마음을 푹노코 한없만누어서 여기서주는밥 여기서주는찬 다조흐니 기서주는대로먹구 자꾸자요 그저 죽는연습을하는것과가태서 죽은생하고 자꾸 자야만한다우 어찌되면 수이 우리 조그마한산에 접이나하나어더서 마음노코 알어보게될지도알겟소 하시며 회계에서 치르고오시는 연료영수증을 제머리마헤 쥐여주시며 편이몸아가시든것은 벌써 달포가간 해가

다 너머가는 어느날어스름이엿습니다 窓너머로 가울이된지 얼마아니되는하늘에 막 暮色이 지터가며 나제 더럽혀엿던 모ー든것을 집웅들이며 눈아페흐르든 공기들까지도다 蒼然한 한비체 끌고루 무치여버리는 그러케도 고요한때엿습니다 저는 형의엘른회친회친 쉬어질것도가튼 그뒤그 탄자가 넘겨노코가는 어떠한 행복의 餘音들을흘으며 얼마나 슬펏는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치밀엇스며 얼마나그 고요한 슬품가운데— 어날의 어둠色이가진 더나의果뒤어업는 그[illegible]것을생각하엿는지몰읍니다 그떠케 그때 형의말씀은 저에게 絕對의것을주엇습니다 죽은셈하고 죽은셈하고 자꾸자란는것이 웨 저를 그러케까지 울리는것이며 조그마한산에집이나하나어더서 마음노코 살어볼지알겟느냐는말슴이 웨 그리 저를아프고 슬프게하는것인니까 제가 죽을것을 두려워하는듯이겟습니까 제가가난한것을 이겨나가지못할것이 두려워서 그러것이겟습니까 아닙니다 저에편한 그러것이아닙니다 제가 저를 죽여서는 못쓰는 생명이줄도 아는것을 형이 형을알듯이 알어수시는 까닭인가 합니다 그러치안코야 어떠케그러케 거진죽어가는생명이 달게죽을것을 생각할수가잇서요 저는 그러케도 제생명에 適合한말을들어본적이 업습니다 그형의말씀들은 默想이아니다 아픔이오 고요한아픔이요 從容한아픔일따름이엿습니다 그리고 이從容한 아픔은 여기잇는 李라고하는 늙은간호부의 말과함께 저를 얼마나 힘잇게하엿는지 몰읍니다 그러나 그간호부의 말도 형이생명에대하야 저에게 가르켜준것이 업섯스면 그것이 제마음에 그러케나타나지 못하고 말엇을것을 저는압니다 그것은 형이 오셧나가 가신지 두년재오는한가일날밥인데 제가제몸에 마지막상재기를 밧던날밤이엿습니다 이날밥 거지새벽녁이되여서 저는 갑자진 목이 옷싹하는바람에 잠이깨여 잠결에 이불을 더닥어서 쓰고 다시 잠이들기는한모양이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어렴풋이나마 이거 이래서는아니되겟다는 그러한 一抹의不安이업지는아니하면서 그러나 그뒤 바로 잠이깨여 이불을 제치고 나설사이도업시 상반신만을 겨우들고 몸을지탕하고 잇슬때에는 벌써 그후끈한것이 하나가득 목에 와다어잇지안슴니까 이러한 여니때가든면 얼마나 광겁햇슬것인데 저는 이때 자기로서도 이상하게 칠착한마음으로 초인종을잡엇든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그것은 누구를부르지안코는 못견딜것가태서 그러것이아니오 단지 입에담뿍담기인 뜨거운것을바를데가업서서 그랫든것입니다 그리고 어때부터 저는 제自身속에 다시살어나드래도 그러한마음의을 버리지안코알코 죽을때에도 亦是 그러하게 넉넉히臨할수잇슬 힘을 발견하엿든것입니다 그리고 초인종소리를 듯고 달려올탄가호부에게 저는 얼마나 感謝의마음을 가젓는지몰읍니다 그는 백그랍메모리가그여진 꼽부를 제입에다 갓다대여수며 배아푸세요 배아푸세요 나온것은 생키지말고 배아트세요 하는것인데 그어서은 누구를 위로한다는 그러무드러운노력조차 보이려고 하지안는것입니다 그저그것은 무엇인가를認定하며 무엇인가를 격려하는소리엿습니다 마치 제가 자꾸 입으로나 오려는것을 아니배앗고아끼려는것처럼이나

이날밤 저는 그몃가든메모리가잇는곱부로 뭐여섯개를뭡고또 방이나 더내엿는데 그리면서 듯든 그간호부의단순한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常識을떠난 제가하드래도 그러케 살수잇다는양시를 주는것이엇뭡고 그이상더몃개를내드라도 온 저에게 그이상 더몃개를 모할 제생에대한태도를 아는이가아니고서는 몰을 위안의말이기때문이엿습니다 누가 前은것처럼 세상에어려운것이업다하엿다드니 저는 그러한구업드러잇는 중안에도 면번이나 고개들어 前은사람이아니면 그러케 빗날수가업을 그가호부의 알뜰다운에 感謝하엿는지 몰읍니다 아니 그것은 感謝하는것이아니라 마음에 祈禱라우는것이엇고 즉거운한을를 가득에 잇는것이라고나하여야 올혼지

第3回 全朝鮮男女音樂콩클

會期臨迫!

一豫選 九月二十七日 一決選 九月二十九日

一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베르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베르트)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 No. 4 (作曲九○)(슈베르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一樂章 (모-짜르트)
【譜表】 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一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一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一褒賞 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훙쿨賞을授與함
一賞金 一等一人二百圓 二等若干人各五十圓 特別社長賞壹百圓
一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日本ソースの草分

イカリソース

五分の一で充分 普通ソース[illegible]の

弱体強化

補血強壯

ブルトーゼ (부루도ー제)

ブルトーゼ 大小
アルブルトーゼ 大小
ヨードブルトーゼ 大小
キナブルトーゼ 大小
ゲアブルトーゼ 大小
コアブルトーゼ 大小
ネオブルトーゼ 大小
冊子「活動の源泉」御申越次第進呈

各帝大病院常備藥
進血アウトホルモン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道修町 東京本橋本町 京城府西小門町

B13　55

◆九月三日밤부터
林仙圭作
「산 송 장」
아ー因襲에 운명은 마침내 [illegible]「브로쎈스」에서 산송장이되여 도라왓다 [illegible] 보라! 모든 [illegible] 反省이 必要하다 보라! 問題의 이悲劇을?
問題의 이劇을!
崔獨鵑作
「이런수도잇나요」 一幕
◆特別提供◆
九月三、四、五日(晝夜二回上映)
納涼名畵特選大會
奉仕料金…十錢均一…於…府民館
(1) 上名 かりそめの幸福
(2) 映 (AMOK) 狂亂
(3) 民人の自由
◆부디 [illegible]의 好機를 놓지마소서!
東洋劇場

九月三日早터五日까지(三日間)
特別名畵大公開
午后六時 晝夜三回
大衆料金 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大活劇 大空地獄
監督 존 부라이스톤氏
主演 쯘지 오브라이엔
◇大平商事社提供品
爆笑劇 モンテイ風雲兒
モンテイバンクス氏 自監督 自演
▲ナンセンスの喚ひ合笑が笑を生む脫線海上爆笑篇!
◇東寶特作品 萩原耐氏監督作品
新 櫻
主演 霧立のぼる、佐伯秀男
次週=命を賭る男、世紀の合唱
京城新堂町 (電話本局) 五六七七番
新富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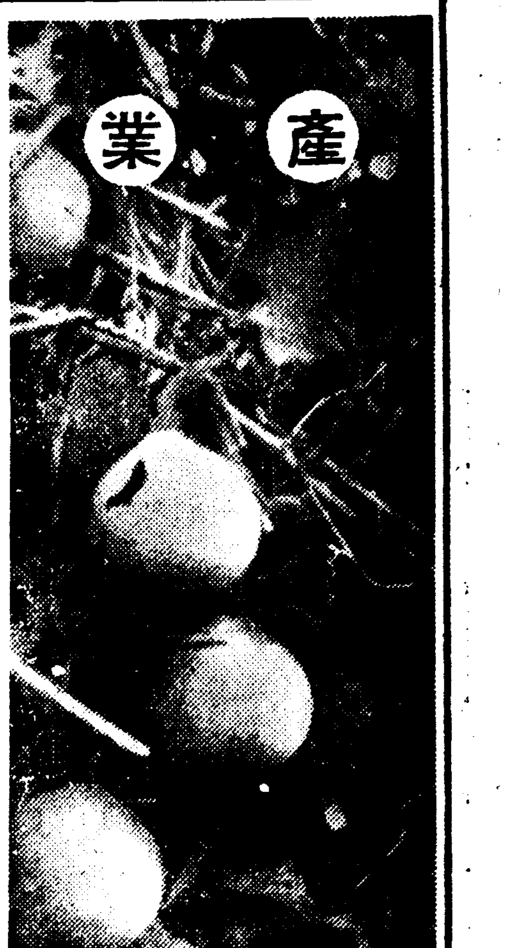
日活
各社ニュース 11.00 2.45 6.30
パ社 女を捜せ 11.20 3.05 6.50
新版 ボレロ 12.35 4.20 8.40
九月八日マデ 九月五日ヨリ
ショウ スキート パレード
上演時間午後2時 午後8時
入場者30セン均一
黃金座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六
電話一一四三番

九月五日晝間早터(三日間)大公開
大衆料金 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二時 二回三時 三回七時半
佛國映畵 에、드라구映畵社 超特作全發聲日本版
마리ー온나루ー드監督
雪山の騎士
主演 루이스도렉가 마리이크로리아
松竹大船超特作 佐佐木康監督
若葉の夢
主演 川崎弘子 吉川滿子 佐野周二 高杉早苗
日本文化映畵社特作品 中村榮朗監督
恩賜の煙草
竹下康之 川島奈美子 主演
東日·大每ニュース
第一劇場
電光 一七五五

今週映の豫告案內
自九月三日 至九月六日 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忠烈 肉彈三勇士
新興キネマトーキー
柳生重兵衛
漫遊記 前篇
月形龍之介主演
おに馬乗つて
ジョウ・ウ・ブ・ヨ・チ・ラ・ン 君主演
每日晝夜二回興行
中央館 電話 三八八




# 水稻品種退化와 그防止에對하야

稻作은 我朝鮮農家의 大宗이요 其產米는 農業生產物中主位를占하야 가장重要한것인데 近時朝鮮의 產米에對하야 間間不評判을듯는것은 實로 遺憾不已이다 이와가튼不評의 原因에는 여러가지가 잇슬것이나 其中에 水稻品種이 退化한것도 其重要原因의 하나인것갓다 總督府에서는 特히本年부터 水稻品種의退化를防止하고 優良產米를 生產할目的에서 種子更新計畫을 一層徹底化하기로 되엿는데 다음에 水稻品種의退化及 其防止法에 對하야 말하야보겟다

## 第一、水稻品種의退化原因

始初에는 優良하던 水稻品種도 長久間一般農家의손으로 栽培되면 漸次品質、收量의低下를 齎來하야 昔日의面目을 喪失하는수가만흔데 이것을 水稻品種의 退化라고稱한다 水稻品種退化의原因은 大體 다음의 세境遇를 들수잇다 即

(一) 遺傳的原因에由하는境遇
(二) 種籾取扱上의原因에由하는境遇
(三) 栽培上의 原因에因由한境遇다 다음에 此等에對하야 解說을 加하면 如左하다

### (一)遺傳的原因에依하境遇

(가) 突然變異에依하야不良形質이出現하야遺傳하는境遇

突然變異라는것은 어떤不明의原因에依하야 其品種 또는系統內에 그와다른것이 發生하는境遇이다 그리고 各種의形質에不良한變化를 齎來하는것이다 突然變異에依하야는 조흔形質이 現出하는 境遇도잇스나 그것은 極히 稀少하고 만흔境遇에는 不良形質이現出하므로 水稻品種은 不斷히退化하여가는것이로 보아도 無妨하다

一例를들면 昭和十二年에南鮮支場의 原種畓에서 純正한六品種에對하야 不良形質이 出現한株數는 如左하다

| | |
|---|---|
| 全調査株 | 三五、八三〇株中 |
| 白子 | 三四株 |
| 糯稻 | 三株 |
| 早期出穗株 | 七五株 |
| 晩期出穗株 | 一六株 |
| 部分不稔株 | 一〇三株 |
| 不稔稻株 | 八〇株 |
| 異型不良株 | 四二八株 |
| 合計 | 八四九株 |

即嚴正한 原種栽培이라도 相當한 突然變異가 생기는것이니만큼 하물며 一般農家의 손에 들어간 境遇에는 더一層發生할것을 覺悟하여야한다

(나) 自然雜種

異品種을 隣接하야 栽植한境遇에 생기는 自然交配率의 程度는 隣接한 兩品種의 出穗時의 天候等에 依하야 差가잇고兩品種의 出穗期가 近接하엿슬수록 또兩品種의 移秧의 距離가 近接할수록 크다 大槪水稻는 自花授粉植物이므로 比較的 自然交配는 적으나 一旦自然交配가 생기면 其子孫에잇서서 種種分離하야 遺傳하므로 數代中에는 거의 栽培할수업는 程度로 退化하는 境遇가만타

### (二)種籾取扱上의原因에依하는境遇

種籾取扱上의 原因中 가장影響이 큰것은 異品種의 混淆로서 이것은 朝鮮에 잇서서는 相當히 만흘수잇다 例컨대 苗代에서 籾이 느러나 收穫時에 籾을 混入하거나 收穫調製時에 兩品種을 混淆하는 等의例는 甚히만타

異品種의 混淆中 가장 可恐할것은 赤米의混入이다 赤米의混入은 最近 퍽적어젓스나 아직 根絕하지 안는것은 (1) 赤米의 正租가 빨리 脫落하기쉽고 越冬力이 크므로 翌春이되여 畓에서 發芽하기 쉬운것 (2) 赤米는 普通米에 比하야 遺傳的으로 優性하므로 萬若 自然雜種이 생기면 年代를 거듭할수록 增殖하기쉬운等에 由하는것인데 特히 其除去는 必要하다

### (三)栽培上의原因에依하는境遇

栽培가 適正치못한境遇와 其他에 依하야 생긴다
(가) 施肥量이 過多한境遇
(나) 稻熱病이 發生한境遇
(다) 旱水風害에 依하야 被害를 엇은境遇
等인데 此等의 境遇에는 모두 種籾及 玄米의品質을 低下시키며 甚한것은 發芽能力을 減退시킨다

## 第二、水稻品種退化의防止法

以上과가티 水稻의 品種은 種種의原因으로 不斷히 退化하고 잇는것을 알수잇는데 그러면 其退化를 防止하고 언제까지나 純正한 品種으로하야 產米의 聲價를 維持케하는데는 如何히하면 조흘가 그에는
(一) 採種畓의 經營에依하야 純正한 種子를 使用할것
(二) 採種栽培를 合理的으로 하야 ... 種子를 使用할것

### 一、苗代

(一) 苗代는 品種別로設定하야 異品種의 混淆를防止할것
(二) 苗代肥料는可及的配合肥料를使用하고 窒素、燐酸、加里의 比率을適當히할것
(三) 播種量은 可及的薄播를하고 强健한苗를育成하야 本畓에잇서서의生育을 良好히하며 一方苗代에잇서서의 異型의發見에 便하게할것
(四) 播種及挿秧의適期를일치말것

### 二、本畓

(一) 本畓의位置는旱水害、適熟等의念慮가업는場所로서 一耕作者一品種으로할것
(二) 本畓肥料는 多肥를避하고 適度히하며 燐酸及加里肥料의 配合을適當히할것

第一表 窒素用量試驗成績(南鮮支場)

| 試驗區 | 反當收量 | 不良米步合 靑米 | 米比率 銹米 | 死米 | 品質 | 穗頸稻熱病 |
|---|---|---|---|---|---|---|
| 無肥料區 | 一、一三五 | 〇、〇三 | 一四、〇八 | 〇、〇四 | 上下 | 〇、九 |
| 無窒素區 | 一、四〇七 | 〇、〇六 | 一一、一〇 | 〇、〇三 | 上下 | 一、八 |
| 窒素一、五貫目 | 二、〇〇六 | 〇、〇五 | 一六、三三 | 〇、〇七 | 中上 | 六、七 |
| 〃二、〇貫目 | 二、三三六 | 〇、〇四 | 一六、三三 | 〇、〇五 | 中上 | 八、一 |
| 〃二、五貫目 | 二、四四六 | 〇、〇四 | 二〇、〇六 | 〇、〇八 | 中中 | 一一、二 |
| 〃三、〇貫目 | 二、四五五 | 〇、〇八 | 三三、九九 | 一、一三 | 中中 | 三一、六 |
| 〃三、五貫目 | 二、四九一 | 〇、〇七 | 一七、八七 | 一、一四 | 中中 | 三九、五 |

### 三、本畓

### 四、收穫調製

### 五、異型의除去

# 代用品 「西南戰爭時代에渡來! 當時는想像外의高價」

세루로이도 ❶

# 產業部長會議에 農林局指示內容

# 家內工業品展 十月一日부터開催

# "무엇이든지議論하시오 臨店指導도함니다" ◇……戰時下商店經營에對하야 京城商議에서積極進出

## 商店經營相談要項

# 商品市勢 六日


# ミツワ石鹼

미 쓰 와

優雅한芳香

世界最高의 미쓰와에는 獨特한氣品으로가득찬 그윽한芳香이잇습니다

溶解適度로三倍는쓰며 써슨뒤에조금도石鹼分을남기지아니하므로 살결이부드럽고조흐며 皮膚를섹곱게한다。

原料工程함께優秀한 世界的最高의標準品

本舖 東京日本橋兩國 ○ 丸見屋商店

Z.54

## 百餘名借家人에게 家賃引上의威脅
### 支出過多理由로月二割要求
### 咸興某家主의處事

【咸南支社發】흉신한 차가난(借家難)을기회로 함흥부내의 가주(家主)들이 가임을인상하야 차가인들의 불안을 더하고잇는이 때에 부내의 모 대가주가 요지음 부내에소유하고잇는 일백여차가인에대하야 일제히 월이할내지 이할오푼의집세를 올린다는 통고를하야 차가인들의원성을놉고잇다 이가주의 인상이유를보면 그가 차가인들에게 계고한바와가티 이번의 사변으로말미아마서 가옥 도 대단히노파젓스므로 현재의 가임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맛지안는다는것이며 동시 여러가지물가가 모두 노파젓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하야 차가인측에서는 과연 세납이 올랏다고 하나 월이할내지 삼할의집세를 올린다는것은 넘우도 억울하다는것은 도저히 수긍되지안흐며 도한 물가고시대에 이가티 집세까지올려서는 도저히 생활을유지할수업다는것으로 크게 분개하야 근일중 차가인들이 회합하고 그대책을 강구키로되엿다고 한다

## 商議에서重大視 調查·調停出馬?

별항 집세를 무리하게 올리려는데 대하야 함흥상공회의소(商議)에서도 사태를 중대시하고서 이진상을 조사키로되엿다 그리고 이두판게자들을 회합조정하야 타협을 시키려고 노력하리라한다

## 保險金詐取面長等 最高十個月求刑

【大田】면장과 면서기등이공모하고 문서를 위조하야 보험금(保險金)을 수십차에 궁하야수천원을 편취하고 법망에 걸려대전지방법원(大田地方法院)공판에회부되엿다 충남서산군 지곡면장(瑞山郡地谷面長) 한태우(韓泰愚)(?)와 동면서기 남성희(南成熙)(?) 이경섭(李?)(?)등 일당(?)은 지난오일대전지방법원에서 석천(石川)판사주심으로 개정되엿는데 입회검사로부터 한성태, 남성희, 이일형 조장환은 징역십개월의 구형이잇섯는바 유용섭(尹用燮)변호사로부터 변론이 잇슨후 폐정하얏다

## 朝鮮窒素會社職工들 水災救濟金醵出
### 本報興南支局에寄托

【興南】하로아침사이에 다수의생명을빼아서가고 밧과 이식주전부를 삼켜버린 관북지방의전고미문의 대홍수에관한 비절참절한정상이 본보지상에 누보되자 흥남조선질소회사공장에서나날이 품파리를하고잇는 조선인직공들중에서 공작계주물부(工作係鑄物部)와 전공계(電工係)에서 서로서로분한이모혀든 전자오십삼원사십전과 후자칠원을본보흥남지국에 기탁하여 재지이재민들에게 보내여 달라고하엿스므로 즉시본사로 송금하는동시에 국원들은 그들의적성에 감동하엿다고한다

一、朝窒會社工作所鑄物係職工 一金五十三圓四十錢也

內譯

一、二圓式 申永夏 朴仲善 朴鳳台 徐起洞

一、金一圓式 金寬重 金在淳 劉源愚 石七星 朴在健 宋熙東 李之浩 楊今福 李鏞玖 白基峰 李尹衡 吳德洙 洪鍾範 高源長 安貞植

金五十錢式 金龍海 徐尹植 呂成 朴興福 金善洙 尹庚男 楊今成 高今鳳 朱東天 林鍾擇 善喆 李鍾福 姜福受 李元吉 張聖五 李根浩 李均衡 柳文楊 勳一 李元泰 金光祐 宋龍三 金二成 金壬夫 全長善 朴熙演 李時復 鄭永奎 金顯父 楊今鐵 金興均 楊泰烈 康鳳善 黃仲烈 高德男 李基鎭 李洛用 韓斗鎬 金麗奎 徐用辰 金永穆 金泰甲 李龍洙 朴合赫 李仁相 金致烈 金致善 金在任 姜文尙 石道澤 金永俊 李鳳鶴 文道炯 張命得 楊福五 張三萬 李河雨

金四十錢式 李漢松 金二十錢式 金尙訓 高應善 劉相俊 金乘 李鍾位 安鉉楨

朝窒會社電工係朝鮮人職工 金七圓

內譯 金一圓式 朴珉曾 金命福 金鏞源 林初鳳 金炯球 朴明鎭 金五十錢式 金冠洙 李鍾萬

以上二口合計 六十圓四十錢

## 惡疾豫防의 迷信이盛行

【沙里院】사리원읍내에는 어데서부터 시작이되엿는지 근거업는허황난『미신』이 떠돌아비상시에 처해잇는읍민을 극도의불안중에 싸이게만들어노코 잇다하는데 사실내용인즉 현재모모도시에서는 무서운전염병이 돌아 헤아릴수업는수효의 사람이죽어나가는바 그무서운병이 사리원으로 닥처올모양인데 먼저 그무서운병에 걸리지안흐랴면 이타하여 먼저무깐에다 수십년된

## 金剛山盜掘防止
### 本格的檢擧를續行
#### 大西保安課長指揮五十名逮捕

【春川】누보한바와가티 세계의명승금강산(金剛山)을 파먹는동서도굴(盜掘)사건은 시국의진전에따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리들이 이십명내지백여명식 떼를지어 도굴을감행하며 산림을난벌하야천연의풍치를 해하는바 적지안흐며 동해안각공사장과 린근각광산에 유리하여온 노동자들이이곳으로 운집하야 그수가날로격증하는 추세는 방관을불허하여 강원도당국에서도 총독부와 연락을취하야 적극적그 방지책을 세우려하는동 번번그대책으로 적극 도벌책을 수립코 지난달하순부터 강원도대서보안과장의총지휘로 사복경관 사십여명을 출동시켜 도굴자의총검거에 착수하얏는데 이에회양(淮陽)통천(通川)고성(高城)양양(襄陽)철원(鐵原)평강(平康)김성(金城)등각서가 협력하여 현재오십여명을검거하엿는데 아직도 속속검거중이라한다 일시의천에직면하엿든 금강산도생기떼이게되엿다고한다

### 大西保安課長談

귀임한 대서보안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도굴자(盜掘者)라는것은 참으로 생명을 내여노코 하는사람들인고로 서롤게 달을수가 업다 금번 제일선에서 검거의지휘를하엿섯는데 곤난한점도적지안햇다 이왕착수하엿스니 한놈도업시철저적으로잡겟다 그리하야 금강산명승의 확보를 기하고저한다운운

## 祖孫이俱沒

【禮山】례산군 례산면 향천리(禮山郡禮山面香泉里)에 거주하는 전윤오(?)씨는 구월사일오전십시사십분경에 례산천다리아래 기괴가 약 십오척가량되는 물에 빠저서 사선의 방황함을본 자기외손자되는 전일동(?)이가 구하려다가 자기까지 마저 수중고혼이되고 말엇다 참실로인이 물에빠저 죽은원인은 수년전부터 자기도 호라비요온 자도 호라비가되어 외가정의호라비살사리에 매일 비판을들고 지내다가 결국 수중에 생명을 희생하엿다한다 이급보를드른 당지경찰서에서는 서원일동과 수방단(水防團)일동이 총출동하야 양인의 시체를 수사중이나 아직 시체는 발견치못하엿다한다

## 트럭業統制實現
### 平南陸運會社出現
#### 八十萬圓資本으로近日創總

【平南支社發】평안남도의 트럭동차에의한 운수운송사업, 일반운동사업, 자동차의수선과 부분품판매로 생기지는 회사 평남육운주식회사(平南陸運株式會社)는근일창립총회를 열기로 되엿는데 위원장 송정민차랑(松井民次郎) 부위원장 김면수(金冕壽)양씨의 위원신청은 지난팔월삼십일 본정(本町)에 창립사무소를 설치하고 창립사무를진행중이던바 자본금(資本金)팔십만원으로하고 일주오십원 일만륙천주(株)전액불입으로 창립키로되여 느저도 이십일까지에 창립총회를 계속 허가로되엿다 사업의목적은 자동차에의한 운수운송사업, 일반동차업 부분품판매등에 관한일체의 업무요 및관련된사업에대한 투자등으로 자본은 팔십만원중에서 보상금(補償金)의 견적액이 이십구만이천오십원, 차체(車體)의 견적액이 사십이만일천칠백원으로 이것을감해버린 나머지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로되엿다

◇支店、出張所設置地方

▲鎭南浦 ▲江西 ▲平原 ▲安州 ▲价川 ▲德川 ▲寧遠 ▲孟山 ▲陽德 ▲成川 ▲順川 ▲江東 ▲中和

## 慶北에小作農激減
### 自作農增加는單四十戶
#### 第一次五個年更生計畫實績

【慶北支社發】농산진흥(農振)운동과 병행하야 지난소화팔년부터 실시하엿든 농가갱생 계획실시 제일차 계획은 지난십이월로서 만오개년계획을 맛치엿다는데 그동안 실적과 당초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갓하서 갱생지도농가는 당초계획보다 삼백이십호의 감소를보이고잇다한다

| | 計畫當時 | 現在 |
|---|---|---|
| 更生指導農家 | 一二四五戶 | 一九二五 |
| 自作農 | 一六〇 | 一九八 |
| 自作兼小作農 | 一〇七四戶 | 一〇七六戶 |
| 小作農 | 九〇七戶 | 五二九戶 |

더욱히 상기한바와가티 오개년 일입일에 착수하야 방금수집중인데 자작농은 삼십팔호의증가이라한다 또한 자작겸소작농은 이호의증가이나 이바면에소작농의 대감소는 대부분이 만서는 생도자작농으로 향상된것이라한다

## 銃後美談

【榮山浦】영산포남소학교에서는 생도전부가 총후봉공하야 요새가튼 염천임에도불구하고 매일(每日)을 수집해서 헌납하엿다는데 제일회 결과를 보면 생도조합의 성적이 가장 우수하엿다 하며 수집한것이 일천여근에 달하야 일반의 칭찬이 자자하다한다

## 中和衛生組合創立

【中和】장족적으로 발전되는중화읍에서는 아즉까지 시가청결의 중요성으로 위생조합이 설치되지 안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야오든바 지난삼일오후시에 당지경찰서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역원을 선거한 결과 다음과같이 결정되엿다한다

組合長 宋曉燮 副組合長 金明煥 顧問 上原正有 行正作 庄野忠愛 宋曾憂 見?文雄 劉光五郎 安鑄 金鼎 鄭寅初 藤本榮遺 和 宋明信 朴東植 衛生委員 金子林文 禹石均 李炳學 佐久山德吉 金永寶 李 幹事 徐成律

## 死傷者九十餘名에 要救急者二千餘名
### 寧遠水害慘狀續判明

【平南支社發】평남산간 영원군(寧遠郡)의 수해는 일보마다 참상의극도에 달한수자가 나타나고잇는데 영원서에서 사일평남도경찰부 보안과에 도착된보고를드르면 최근까지판명된 도로와 전답을 제외하고 새로발견된피해만도 사자(死者)팔십일명 부상자십이명 유실가옥(流失家屋)백오십칠호 전괴이호 반괴사십오호 비주가(非住家)유실구동 침수주가 사십구호 비주가유실호소와도야지의피해 백사십두로그중에서 구제를요할이구는 사백칠십삼호 이천여명이다

## 腦脊髓膜炎 晉州에發生

【晉州】진주에서는 근내에드문 뇌척수막염(腦脊髓膜炎)이라는 전염병이 발생되여 진주서(晉州署)사법계 순사부장 용택광리(龍澤廣綱)(三〇)씨가우연히이 병에걸려서즉시진주도립의원에입원치료하엿스나드디어 병에걸린 일주일만인 지난사일오후육시에 사망(死亡)하엿다한다 의사의말에의하면 이병은 공기전염이라하며 한번걸리면 십중팔구는 구하지못한다고한다

## 民事의原被告 裁判所서格鬪

【慶北支社發】채무(債務)관계로 법적수속을 밟어 방금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민사부에서 원피고(原被告)두사람이 법에의한 미온적방법으로는 시원치못하야 공판정에서 나오자마자 철권으로 즉결을지으려다가 결국두사람모두 파출소행한사건——지난오일오전 열시반경 대구지방법원구내에서는 경남 부산영정(釜山榮町)이정목 삼십칠번지 김윤갑(金潤甲)(?)이라는자와 대구부신정(新町)일백십오번지 김용순(金容俊)(?)이라는 민사사건의 원피고간에 일대격투가 전개되여 유혈극을 연출한후 피고인 김용순이가 손가락에 절골기타 안면에치료십여일을 요할부상을 밧고"넉아웃"이되엿다는바 동민사사건의내용은 지난이엽일에피고김용순이가 원고로부터 현금사백원을 차용하엿던바 그중 이백오십원에 해당하는금액은 반제하엿스나 남어지 일백오십원에대하야 원고로부터 차압수속을 하엿든것이라고한다

## 다섯번채監獄行
### 出監後一週日안에또盜賊질

【鎭南浦】지난사일오후열한시반경 진남포비석리(碑石里)오십오번지리재옥(李在玉)방에한명의괴한이침입하야 가내물품을 수색하고 잇는것을주인리재옥씨가발견하야 목소리를놉히자 괴한은 어데로 도망하엿슴으로 부근정거장파출소(停車場派出所)에급보하여 파출소에서는 당번중인순사 중촌, 박중구(中村、朴仲九)양순사가 급행하여 범인을엄탐한결과 평남가도(平南街道)에서 수상한청년 일명을 검거하야 취조한결과 진범인으로 판명되엿는데 범인은 부내비석리 거주무직장상화(張?)라는데 지난팔월삼십일 진남포형무소(鎭南浦刑務所)를 출소한전과사범을 가지고잇는자로 형무소를나오지 일주일도되지못하야 또다시 도적을할려다가 발견미수로 다섯번채형무소행을 하게되엿다한다

## 朴相駿氏 百圓을또獻金

【鎭南浦】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박상준(朴相駿)씨는 오일진남포경찰서를 방문하야 헌금백원을 부내거주 전사용사(戰死勇士)의 유가족위문금으로 기부를 하엿다는데 씨는지난번에도 자기가 가지고잇든 금액의 일부를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야 다시 거의하사는 각방면으로부터 대대적감격하고잇다한다

## 平南平原郡에 睡眠性腦膜炎猖獗

【漢川】평남평원군(平原郡)에서도무서운전염병이발생하엿다 지난달 이십일부터 한천면(漢川面)내에 발생하여 일주일동안에 병사자(病死者)오명과 이병자(罹病者)사십명이라고한다 그중청산소학교(靑山小學校) 사년생(四年生)수명도 뇌막염(睡眠性腦膜炎)이라고하는 병에걸리엇다 한다 당국에서는 철저히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한천(漢川)과 청산(靑山)방면에는 교통을 차단시키고 도회무과(衛生課)에서는 방역반을 파견하여 소독과 예방주사를 하는등 긴장하엿다한다

## 非行教員相對로 五千圓請求提訴
### 父母의精神物質上損害만다고
#### 蓬萊小學校不祥事로派生

【慶南支社發】부산 봉래소학교(釜山蓬萊小學校)훈도 정선용(鄭善容)에 대한 생도구타치사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년징역의언도를 밧고 방금 공소중에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구월오일에이르러 사망한아동 박광배(朴洸培)의양친인 그의 아버지 부내 초량정(草梁町)팔백이십번지 박인화(朴仁和)그의 어머니 김복선(金福善)은 전기 정선용훈도를상대로 부내 중도정(中島町)김종원(金從源)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하야 위자료 오천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엿다는데 그소송의내용은 다음과가티 선도하기는커녕 사소한일을 트집잡아 무책임하게 머리를때려 죽게까지한것은 그요지는 그러한 결과로서 정신적물질상손해를 주시하고잇는바 그 원인으로 아이에 드되여 죽게까지한것은 오도한다

## 木浦郵便局 電話業績良好

【木浦】목포우편국(木浦郵便局)의 소화십이년도중 전화사무성적을 보면 구원으로 작년동기에비하야 요금은 삼천삼백사십삼원이요 통화수는 할이나 증가하엿다는데 시내전화는 일일평균일만오천오백삼십도라한다

## 農林學校期成에 有志喜捨金遝至
### 平康郡民教育熱誠

【平康】평강에도립농림학교(道立農林學校)설치에 평강부호(平康富豪) 전병은(全炳殷)씨가 일만원을희사하여 본보에 보도되엿음은 국민의 관심을 끄럿든바 어제도 유지자제씨는 물심양방면으로 아울러 자진희사하엿는데 금번에희사한분은 다음과가튼다

金二千五百圓 平康郡平康面西邊里 朴洞範氏
金一千圓 平康郡平康面西邊里 李會明氏
金一千圓 平康郡平康面西邊里 李萬鎬氏
金一千圓 平康郡平康面東邊里 金寶秀氏
金五百圓 平康郡平康面東邊里 全永圭氏

## 列車事故兩件
### 一名慘死一名重傷

【平南支社發】열차사고두가지—

▲오일오전세시이십이분경 경의선(京義線)북행화물 오백사십삼열차가 고읍역(古邑驛)을발차한직후 조금잇다가 궤도에가로누어 자고잇는사람을 발견햇스나때는이미 늦저 치어죽엇다 조사한결과 정주군곽산면광동(定州郡郭山面光東洞) 김경제로 만명을이대취하여 궤도를 버개삼어 잠이들엇든 것으로 양팔, 양다리, 머리가 산지사방하여 눈뜨고볼수업슬 참경을 일우엇다

▲사일오후여섯시이십분경정주역(定州驛)을 출발 평양에향하든백구십이열차가 서포—간리간(西浦—間里間)을 질주중 삼등열차"덱키"에서 굴러떠러저중상을당한 여객이 잇섯는데정주읍내(定州邑內)산다는 뇌천평일(瀨川平一)로 생명이 위독하다

## 鴨綠江댐建設로 五千町步를喪失
### 山田平北農務課長談

【平南支社發】산전(山田)평안북도농무과장은 일평양에왓다가 귀임햇는데 다음과 가튼 이야기를하엿다 이번평양에 들린것은 평북산간부의 수해상황을 시찰하고 귀도에 경의를표하려는것으로다 평북산간군부에는 수해피해는 거의업고 예의『압록강댐』의 기공사가 일조간에 수해로 경궤유실되여 손해는사십만원에달햇다 이『댐』의건설로 상실되는경지(耕地)는 오천정보로 평북의 집단이민(集團移民)으로서는 일대의농민을 만주에 보내든가 하는 방금대책을 석중고려중이다 고 한다

## 鼠賊

【淸州】지난이일오후세시부터 동네시사이에 청주읍민은 응소군인의 환송차로 역에 나간사이를 틈타서 시내 본정일정목 북일루(北一樓)근방답 청수정(淸水町)조사매길(鳥飼梅吉)씨방등 다섯집에 엇던자가 침입하야 시계의복등 수십점을 대담하게 절취하여간 사건이 발생하엿는대 청주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 淸州洋靴業者 道當局에陳情

【淸州】구월일일부터 실시되는 혁통제의 여파는청주의 양화제조업자에게도 심각하게밋치게되여 폐업하는자가 속출하고잇는데 더로 약백명의 직공들이 구제가곤란케되여 잇다하는데 최근들리는 소식에의하면 이들 제조업자는 현재각상점에잇는재고품에한하야 기한부로 제조허가를 하여주면 직공들은 이를 제조하야 이것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또는 이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겟다는 희망을가지고잇는모양으로 각점주는 직공을구제하는 한편 재고품의 정리를 도모하기위하야 기한부로 제조를 허가하기를 진정키로되여 방금 준비중이라고한다

## "産米增殖과地下 資源開發이急務"
### 李黃海道産業部長歸任談

【海州】총독부에서는 각도산업부장(産業部長)을소집하여 지난팔월삼십일부터 구월이일까지 나흘동안 제일회의실에서 산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엿는데 이에출석하엿다가도라온 황해도 리(李)산업부장은 지난오일 도청에 도착하야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이번회의는 산업부장회의라는 각도행정기구(行政機構)의 일부개혁후 제일회의로서 더욱이 시국하의 산업(産業)경제(經濟)방책에대하야 총독과및 정무총감각하의 중대훈시가잇서 참으로 자기책임의 중차대한것을 통감하엿다 시국은 지금이야말로 장기지구의단계에 드러가 조야를드러 국민총력전을 각오할가을로서 제국의 대륙전진 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의 조선에부여된 사명의 중요성에비추어 특히 산미증식의 확충에 전념하는것은 물론이요 지하자원을 개발하야 군수공업(軍需工業)의 발흥을꾀하고 다시 제삼국과의 해외무역(海外貿易)의 신전(伸展)을 기하기 위하야 각종원료품의 생산장려에 노력하고 또일면 전시경제의 조정에관한 당면의처리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된것으로서 우리들은 이때를당하야 관민일치하야 장기전하의 국방경제(國防經濟)의 정비진행에 만일의유감이업기를 기하는결의를 가지는것이다운운

## 人夫一名溺死

【兼二浦】겸이포강안 하양장(荷揚場)에서 광석(鑛石)을 운반하던 인부 충청남도(忠南)출생인 리영상(李永相)(假名)(二〇)은 지난이일 오후세시에 배밧판에서 실족하여 그만 물속에 빠저죽엇다는데 구조에 로력하엿스나 아직시체도 발견치 못하엿다

## 照明彈

안악(安岳)의유지 김원량 김종량(金元亮、金鍾亮)양씨 또 다시 고녀(高女)기본금으로 대금을희사

◇

평강의 전병은(全炳殷)씨도 평강농림교(農林校)기성에 만원을 선뜻 헌척한 교육계의 공로이중수

◇

교육문제가 물론 중대한 근본문제임에는 틀림업스나 엇지 이것뿐이리요

◇

중요다른방면으로도 제이제삼의 김종량, 전병은씨가 나와야 할일

## 長篇小說 林巨正 【158】
洪碧初 作 金熊超 畫

피리 (三十九)

단천령이 길막봉이의 배행으로 답고개까지 나와서 길막봉이에게 수어치사(數語致謝)하고 바로 송도로 향하는데 봉피밤이 다 걷는하야 꼿 남것가리어든 나비가 거미줄에서 벗어서, 천산으로 날러가는듯 조롱에 가치엇든 새가 조롱을 버서나서 공중으로 날러가는듯 단천령이 눈트고 꾸는꿈에 나비되어 너픈너픈 날고 새가되어 훨훨 날다가 나귀가 넓은 도랑을 건널때 하마 떨어질뻔하고 꿈이 깨어젓다 대강대강 짓거리는 기집듯 말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적굴에서 부터 동행하는 송도기생 들이 말들을 여프르다고 뒤에 따라오는데 짓거리는것은 자기이야긴듯 랑반틀게이란 말이 귀ㅅ결에들리어젓다 틀게소리가 귀에는 거치나 말에까지는 거슬리지아니하얏다 그보다도 한소리탐한대도 시뻘소리엇다

단천령눈에 좌우산천(山川)이 청음대하는것가티 새로워서 산보고 조하하고 물보고 조하하며 송도부중까지 들어왓다 송도를 지나면 점심참이 어스나 해가 점심때가 안되어서 단천령이 송도서 쉬지안코 그대로 지나라고 하다가 적굴에서 수청든기생이 저의집이 멀지안타고 잠시 들려가라고 붓들어서 그기생의집에 가서 점심대접을 밧고 묵어가라고 붓드는 것은 못하겟다 떼치고 떠나나와 장단읍내 숙소할작정하고 나귀를 술령술령 걸리엇다. 어느듯 널문이를 지나서 어룡개압길에당도하야 산한모롱이를 돌아서자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질끈 동인놈 서넛이 길까에 주저안젓다가 죽들일어섯다 단천령의하인이 얼른 지나가라고 나귀를 채처모니 세놈이 길을 가로막고 나섯다 하인은 뒤로 주춤 물러서며 단천령을 치어다보고 단천령은 태연하게 나귀등에안저서 세놈을 나려다보앗다

『어서 나려라』

하고 한놈이 소리를 질르며 아프로 나서는데 단천령은 예사언성으로

『왜 나리라는냐』

하고 뇌까렷다

『우리가 어떤사람인지 보다 모르겟느냐 노수 다 내노쿠 나귀까지 두구 가거라』

단천령이 꺽정이의 주든 장도를 생각하고

『보여줄관한 물건은 하나잇거니』

하고 말하며 창의소매에 든 장도를 끄내서 아페나선놈을내주어댄다 그놈이 장도를 바더들고 보는데 두놈마저 와서 드려다 보더니 세놈이 서로 도라보면서 혹 입도 벌리고 혹 고개도 흔들엇다 장도가진놈이 단천령을 치어다보며

『이걸 어디서 어드셧습니까』

하고 까뜻한 말씨로 물엇다

『장도임자에게서 어덧지 어디서 어더』

『그러십니까 그러신줄 알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서 행차하십시요』

『장도는 나를 돌우수어야지』

『네 예잇습니다』

단천령이 어룡개압길 후미진 곳에서 적화(賊禍)를 면한뒤 꺽정이의 장도가 갈잇는줄을 밝히 알엇다

이날밤에장단 숙소하고이튼날 나제 파주 숙소하고 고양으로 오는길에 혜음령 중턱에서 단천령은 또 화적을 만낫다 화적 대몸이 내달어서 길을 막으며

『나귀게 세워라』

하고 소리질를때 단천령은 화적들을 갓가이 오라고 손짓하야 불러다가 창의 겻고름에 찬 장도를 보라고 내밀엇다 화적 한놈이 저의동무들더러

『청석골 대장의 표신일세』

하고 말한뒤 곳 길들을 비키엇다 고양읍에서 숙소하더라도 내일 입성하기는 일반인데 단천령은 단십리나마 서울 더갓가이 오라고 새원와서 숙소하고 이튼날 일즉 떠나서 아침결에 목번이고개를 너머올때 엇던사람 하나가 나귀머리에 와서굽신 절을하엿다 단천령이 전에 본적이업는 사람이라

『누군고』

하고 무르니 그사람이 누구란 말은 하지안코

『청석골서 장두가지구 오시는 행차시지요』

하고 되무럿다

『그걸 엇지알구 못나』

『다 압니다 그장두를 이리 줍시요』

『그건 왜 달래』

『차저보내란 기별이 왓습니다』

『청석골서 사람이 왓단말이야』

『네 그러케 왓다갓습니다』

『무어야 내가 그러케 청석골서 떠낫는데』

『오지안흐실 와단말이가 잇습니까 황두령이 그러케 와다갓습니다』

『황두령이라니 장기잘두는사람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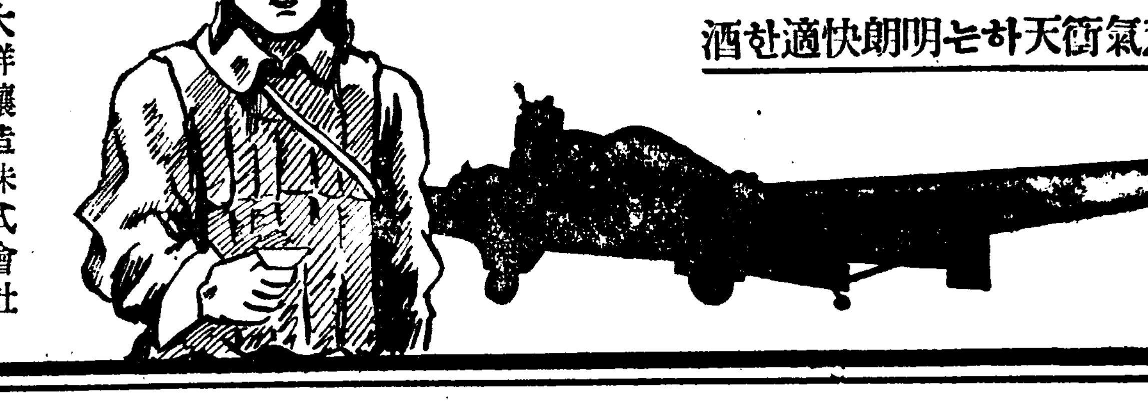
『네 그럿습니다』

『그사람이 그러케 청석골잇섯는데 무슨 당치안흔소리야』

『황두령이 장기잘두는건 아서두 축지법하는건 몰으십니다 그려 요새해에두 서울은 두서너차례 도다녀갓습니다』

단천령이 더 말드하고 꼬장도를 끄러서그사람을주어버리엿다

天安支局 電話開通 一二二三番



女店員募集
一、年齡 十八歲以上
一、資格 1中等學校卒業者 約三十名 2小學校卒業者 若干名
一、締切 九月十五日
右希望者는自筆履歷書에最近撮影한手札型寫眞을添付하야本社人事課로提出하시요
昭和十三年九月六日
京城 和信

# 銀行預金金利統制
# 全朝鮮一率水準
## 假稱『朝鮮金利調整團』結成키로
## 金融業者自治的協定

朝鮮內의 金利의 中央水準化에 對하야는 金融業者間에 그 實行案을 講究하기로하고 五日午後二時半부터 銀行集會所에서 鮮銀、殖銀、商銀、東一、商銀、貯銀、金組、信託、東拓의 各代表者(湖南、慶尙合同、大邱商工三者는 缺席)가 出席하야 協議를 한 結果 相當히 議論이 沸騰하엿스나 結局金利調整의 大綱으로서

一、銀行間의 預金金利統制는 全朝鮮一本으로하고 中央金利로 水準化할 것

二、金組、信託、東拓、貯銀과 一般銀行과의 金利調整에 關하야서는 統制의 方法으로써 朝鮮의 根本方針을 決定하고 異議업시 成立되엇다

金利調整團(假稱)을 設置하야 統制의 衝에 當하게하고 各金融機關別의 金利를 協定하야 이것을 嚴守할 것을 한다

# 具體案細目難關
## 三地方銀行의協力如何가疑問
## 金組、信託、貯銀도未解決

一、銀行의 金利中央水準化에 對하야는 慶尙合同、湖南、大邱商工의 三地方銀行이 當初부터 異論을 세우고잇슴으로 果然이 三行이 大勢에 協力할는지 疑問이다

二、또 金利의 協定에 當하야 (가)金組는 組合員의 預金은 如何튼 組合員外의 預金은 그 稅引金利를 乙銀과 가티 引下하는 것은 異論이 업스나 組合員의 預金金利를 如何히 하는가 (나)信託은 長期信託吸收를 主眼으로 短期의 信託配當率은 적어도 乙種銀行金利와 가티 引下하여달라는 銀行側의 希望에 對하야 態度를 保留한 것 (다)貯銀은 投資의 制限을 맛고잇는 關係上 預金金利의 引下에는 異論이 업스나 利率의 決定에 對하야는 態度를 保留한 것 以上과 가티 朝鮮內의 金利調整에 對하야는 金融業者 自治的으로 調整한다는 大綱은 決定되엇지만 具體的細目에 잇서서는 相當한 難關이 橫在하고잇슴으로 此點에 對하야는 今後 木曜會에서 協議를 거듭한 後 成案을 어더 總督府에 答申하기로되엇다한다

# 鮮銀도再割利下?

銀行預金金利의 調整에 따라 地場乙種銀行의 鮮銀에 對한 再割希望이 잇서 五日의 金融業者懇談會에서 話題로 되엿는데 鮮銀도 大體 再割金利引下에 方針을 決定한 모양으로 公債擔保뿐아니라 不動產商業手形、米穀證券等의 再割引金利引下도 考慮中이라 한다 調整의 方針이 決定되어 實行되는 때에는 鮮銀도 再割引實行의 方針을 取할 것으로 보인다 한다

# 弗貨暴騰
## 歐米政局緊迫

最近磅貨低落에 際하야 英國의 爲替平衡資金은 從來磅貨의 買支에 出動하엿스나 倫敦爲替市場에서는 政府의 統制買가 업섯스므로 英米爲替는 다시 下押되어 五日은 四弗八一仙三十七로 續落하엿고 弗貨는 過去三年來의 新高價를 示하엿는데 이 弗高의 原因에 對하야 倫敦消息通側에 指摘한 點은 如左하다

一、國際政局의 緊迫이 世界經濟上에 주는 影響으로 恐怖的『오모와구』側이 多額의 弗貨를 買付하고잇는 것

# 八月對外貿易
## 主要國別消長

朝鮮의 八月中 對外貿易은 旣報와 如히 成立하엿는데 總督府調査에 依한 八月中 主要國別의 消長을 보면 輸出一千五百九萬七千圓 輸入一千二十七萬圓으로 出超四百八十二萬七千圓인데 張鼓峰事件及水害의 影響으로 北朝鮮方面의 荷動이 一頓挫되엿슴에 不拘하고 輸出은 本年五月의 一千六百七十萬七千圓에 버금가는 巨額으로 一月累計는 昨年同期의 入超一千七百萬四千圓에 對하야 一千百八萬四千圓의 出超를 보이어 半島對外貿易史上 出超의 態勢를 보이고잇다 出에 잇서서는

| | |
|---|---|
| 滿洲國 | 一〇、一五〇千圓 |
| 關東州 | 三〇、三七五 |
| 中華民國 | 三、〇七二 |
| 第三國 | 二、三九八 |

을 算하야 이것을 前年同月에 比하면 對滿、關、支의 倍加를 보이고 輸出入品臨時措置法公布以來 綿織絲、木材가 著減되엿다 하여도 米를 筆頭로 綿織物、小麥粉、玉蜀黍、煙草、砂糖、清酒等이 이제 八月中 增減이 顯著한 것을 摘記하면 如左하다 生活資料『세멘트』類、發破藥等의 事業用品에 出荷活況을 보인데 基因하는 것인데 就中 米及小麥粉은 最近의 滿洲國內食料需給關係의 硬化 玉蜀黍는 滿洲國에서 北支에 對한 出荷杜絶에 依하야 增勢를 繼續하고 綿織物은 圓圈內에 對한 輸出抑制로 先物約定品의 出荷에 그치나 아직 相當額을 維持하엿다 第三國向輸出은 原料不圓滑에 主因하는 國內物價의 昂騰及海外의 商況萎靡를 反映하야 不況을 繼續하야 琺瑯鐵器는 그 代表的인 것이다 또 人絹織物에 對하야는 第三國向의 顯著한 減退를 看過할수 업는데 對滿、關의 增進이 顯著하야 叙上과 如히 高記錄을 내인 것

(單位千圓)

| | | | |
|---|---|---|---|
| ▲增加한것 | | | |
| 米 | [illegible] | 發破藥 | [illegible] |
| 綿織物 | [illegible] | 藥 | [illegible] |
| 세멘트 | [illegible] | 煙草 | [illegible] |
| 小麥粉 | [illegible] | 砂糖 | [illegible] |
| 玉蜀黍 | [illegible] | 清酒 | [illegible] |
| ▲減少한것 | | | |
| 人絹織物 | [illegible] | 魚油 | [illegible] |
| 綿織物 | [illegible] | 陶磁器 | [illegible] |
| 琺瑯鐵器 | [illegible] | 魚介罐詰 | [illegible] |
| 電球 | [illegible] | | |

(ㄴ)第三國向增減額(單位千圓) 他方輸入에잇서서는(單位千圓) 滿洲國 [illegible] 關東州 [illegible] 中華民國 [illegible] 第三國 [illegible] 으로 前年同月에 比하야 滿、關、支에서오는 것은 增大하고 第三國에서오는 것은 減退하엿는데 어거 滿、關、支로서부터의 輸入은 玉蜀黍、胡麻子、豆粕等이 產地品薄等에 依하야 著減하엿스나 滿洲粟이 前年事變勃發에 따라 輸送難으로 入荷不振하엿슴에 反하야 本年은 實需旺盛에 依한 現物不足으로 取引股盛을 呈하야 九十七萬九千圓(前年同月四十四萬七千圓)에 達한外에 作蠶生絲、石炭、木材等 大概全面的으로 入荷가 好調하엿든까닭이다 그리고 第三國으로부터 의 輸入은 英、獨의 機械類、蘭印의 原料糖及 南洋의 燐鑛石等이 輸入制限等에 依하야 荷杜絶하엿스므로 不勢에 推移하엿지만 結局輸入貿易도 十八萬五千圓(一割)을 增大하엿다한다

# "大規模高度工業
## 中小工業群從屬必要"
### 大野 時局對策調査會長 述

時局對策調査會는 六日부터 開催된바 會長大野政務總監의 인사말中『大陸前進兵站基地로서의 朝鮮의 重要性』은 大體如左하다

朝鮮은 地上、地下又는 海中의 諸資源이 모두內地에 比하야 젊고 少壯期에도 達치못한 部門이 잇는것이 特徵이다 鑛業資源에 잇서서는 產金五個年計劃著手를 비롯하야 重要鑛物의 發見으로 發展되는中이오 農產도 內地에 比하야 反當收穫이 低함으로 產額을 增大할 餘地가 만타 畜產、林產、水產等資源이 豊富하야 그 開發이 急務이며 工業도 投資企業에 對하야 改善할것이 만흔데 水力發電을 主로 한 勤勞力의 豊富廉價인것이 特色이다

朝鮮의 產業構成은 所謂原始產業의 素地우에다가 新進과 가튼 多彩인 近代產業을 取入하는 段階에 達하얏는데 國防的 意義에 卽한 產業部門 卽 重工業、精密機械工業等을 中心으로한 軍需產業의 要素를 導入育成함이 急務이다

大規模의 高度工業은 그 一部分品의 下請負를 하는 多數한 中小工業群을 從屬케함이 必要하며 人的要素改善等 幾多의 隘路條件이 잇서 一朝實現을 期할수업스나 國防經濟上 될수잇는대로 諸種의 隘路를 排除하고 實現을 促함일이다

# 內地小麥實收減

【東京發商通】北海道 東北六縣 新潟 長野를 除한 三府卅五縣 十三年度 小麥實收高는 七九三五六四石으로 豫想에 比較하야 一割一分五厘의 減少、昨年實收에 比較하야 九分八厘의 減少이라한다

# 產金振興會社
## 十六日에創總

產金振興會社는 社長副社長이 決定되고 來十六日드디어 創立總會를 열게 되엿는데 總督府로부터의 理事一名의 入選에 對하야는 目下 阿部千一氏(慶南知事)가 有力視되고잇다 또 產金會社에는 總督府에서 志賀鑛山課技師 村上理事官以下 技術者事務家各二十名이 入社하기로되어잇는데 同社의 職制는 總務、事業、技術의 三部制를 取할 모양이라한다

# 全滿五年度
# 農作收穫
## 一、二割增收?

【大連發同盟】康德五年度全滿農作物收穫高는 政府의 第一回豫想發表에 當하야서도 單只作況만의 總括的數字에 끄치엇는데 當業者方面에잇서서는 第二回發表의際는 輸出品인大豆에 對하야는 輸出可能量의 具體的數字의 發表를 要望하고잇는데 業者는 自己의 必要에 依하야 康德五年收穫高는 大豆四七〇萬噸、包米二四〇萬噸 高粱四七〇萬噸 粟子一〇萬噸으로 昨年에比하야 一、二割의 增收가 될것으로 推定하고잇다 그리고 滿洲國의 外貨獲得上에 最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는 大豆의 收穫高를 四七〇萬噸으로볼때에는 地場消費量을 約一一〇萬噸으로 보면 五年度新大豆의 輸出可能量은 三六〇萬噸이 되는데 이에 四年度產持越高 一二〇萬噸을 加하면 合計三八〇萬噸이 五年度의 輸出可能量이 되는데 滿洲國과 貿易協定을 가진 獨逸에 約百萬噸 伊太利에 約二十萬噸 北歐諸國에 約二十萬噸 合計歐洲向百四十萬噸으로 大同二年輸出 大豆歐洲向百七十六萬噸에 接近하는 것은 不可能事는 아니라고 보인다한다

# 倫敦金塊爆發
## 七磅四志一片

歐洲情勢에 不安은 去益激甚하여저서 歐洲諸資本家들의 金買入熱과『오모와구』側의 新規買殺到로 金不足을 招致하게되여 倫敦金塊市勢의 今朝入電에 依하면 一擧에 八片高로 七磅四志一片이며 換算一匁十四圓八十八錢八厘八毛强으로 前日에 比하야 六錢八厘一毛强高로 騰貴되엿다한다

# 咸南兩無盡
# 合併決定
## 二百萬圓新會社創立

咸興、元山兩無盡會社(各資本金十萬圓)는 이미 咸南知事의 斡旋으로 合併工作中이든바 드디어 來十日에 兩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合併假契約을 하야 正式合併하기로되엿는데 社長及本店所在地에 對하야는 問題가 잇섯스나 모두 知事에게 一任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新設會社의 名稱은 興南無盡株式會社로 資本金은 二百萬圓(四分之一拂込)이라한다

# (民)(需)(制)(限)(物)(資)(解)(剖) ⑬
## 石綿

石綿(一名石絨)은 防火用(織物類) 保溫防熱用(紙、板、파이프、塗料) 패킹그(特히 보이라用) 塗裝 耐火瓦 電氣及熱의 絕緣劑 被覆의 濾過布塵心 其他 耐酸耐熱材用 으로써 多方面에 使用되고 또 이것을 使用하는 化學工業이 勃興됨을 따라 그 需要高도 年年 著增되고잇다 그런데 我國에는 이것을 包含한 資源이 거의 업서 需要高의 一〇〇%를 主로 米國、加奈陀、阿弗利加等으로부터 輸入하고잇다。昨十二年度에는 約四萬四千餘噸(金額約九百六十餘萬圓)을 輸入하엿다。

石綿은 前記와 如한 用途를 가지는 以外에 艦船에 잇서서는 重要하고 其他 兵器에 使用되고 또 軍需工業의 進行上에 不可缺한 것이 되고잇다。따라서 軍需用을 優先確保하기 爲하야는 一般民需向 使用을 極力制限하여야 되는 것은 他의 重要物資와 一般이다。그러나 民需向使用을 一律로 制限한다하여도 그 用途의 性質上、모두 重要하므로 어느 部門에 對하야 얼마나한 制限을 할른지 慎重考慮하여야 하는 同時에 圓블럭內에서 自給對策을 確立하는것도 緊急할것이다。

×

我國內에 잇서서의 產出高는 殆無狀態이나 僅少量이 朝鮮에서 產出된다。따라서 大幅의 需要量增加에 對하야 年年 多額의 輸入을 하여 왓다。石綿需給狀況을 보면 如左하다

(單位噸)

| | 產出高 | 輸入高 | 合計 |
|---|---|---|---|
| 昭和七年 | 一 | 八、〇〇六 | 八、〇一〇 |
| 〃八年 | 三 | 一四、一〇五 | 一四、一〇八 |
| 〃九年 | 四 | 二〇、五二四 | 二〇、五二八 |
| 〃十年 | 六 | 三一、六二九 | 三一、六三五 |
| 〃十一年 | 七 | 三六、五八〇 | 三六、五八七 |
| 〃十二年 | 一 | 四四、二〇五 | 四四、二〇五 |
| 〃十三年(一—六月) | 一 | 一八、七二五 | 一八、七二五 |

卽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야 增加의『템포』가 急激하고 特히 昨十二年에는 七年의 約八千噸에 比較하야 五割八分强의 輸入增加를 보앗다。이것은『스레이트』等의 用途擴大에 依한 同時에 主로 關係化學工業이 勃興하여 需要가 增加한데 基因하는것이다。그리고 本年上期의 輸入高가 貿易統制가 施行되엿는데도 不拘하고 昨年同期의 輸入高보다도 도리혀 增加되여잇다는것은 軍需工業用으로서 石綿이 얼마만큼 重要視되고잇는가를 明白히 말하고잇다。

×

今後도 事變의 長期化를 따라 國內需要高는 益益增加될것이니 이와가튼 戰時重要物資를 輸入에 依存하고 잇는것은 不利하므로 圓블럭內에서 自給對策을 講究하여야 되겟다。그런데 我國內에서는 朝鮮이 少量產出하나 問題되지안코 滿洲에도 보잘것이 업다。北支에는 埋藏量이 約四十萬噸에 達한다고 推定되여잇스니 이것을 積極的으로 開發하면 當面의 自給에 相當한 期待를 가질수잇겟다。

石綿의 用途別需要高에 對하야는 아직 判明되지안핫스므로 어느 部門에 어느 程度의 使用制限을 할른지 正確히 알수업다。그러나 一般民需用이 使用制限을 바들것은 分明하므로 此方面에 對한 供給은 益益窮迫되여 需要者에 對한 影響은 甚大할것이다。

·다음에 問題되는것은 原料等의 配給統制의 統制機關인데 現在에는 그 機關으로서 關東石綿製品、關西石綿製品、日本石綿『스레이트』製品等의 各組合이 잇스나 그 統制力은 薄弱하다。따라서 原料配給의 圓滑을 期하기爲하야는 此等統制機關을 强化하도록 適切한 措置를 하여야할것이다。

# 朝鮮農會의
# 西湖津配合所
## 十月初工事完成

朝鮮農會에서는 總工費六萬八千圓으로서 咸南西湖津에 配合肥料工場及倉庫를 建設中이던바 八月中旬 工事는 竣工되엇스나 其後機械其他의 裝置로 遲延되어 겨우 本月中旬부터 着手하야 十月初旬까지에 完成하고 明年一月의 春肥부터 事業을 開始할 豫定인데 同工場의 製造能力은 一日六千叺、魚肥三萬貫이라한다

# 貯銀淸津支店
## 十二日開店

貯蓄銀行淸津支店은 來十二日부터 開設하기로되엿는데 支店長은 山下連氏가 任命되엿다 伊森頭取는 支店開設披露를 爲하야 六日午後 淸津에 出張하기로되엿다고

# 株式 强堅裡에 揉合

**前場强調** 今朝도 亦是無材料이나 押目買進으로 東新九高 百四十八圓三、鐘紡一圓一高 一百三十二圓七로 反戾寄付後 高値買는 依然히 警戒하고 賣方이 모두 歐洲政局推移를 觀望하고 一進一退를 거듭하다가 結局東新八圓一、鐘紡一圓五로 强調大引

**後場揉合** 後場은 東新五低인 百四十七圓七、鐘紡一百三十二圓五에 同價寄付後 다시 閑散이다가 少堅裡大引

**市勢자못强靭** 昨日의下押의 機會일지 안코 買하려는 人氣가 旺盛하야 市勢는 그 强靭性을 發揮하고잇다。秋高市勢期待와 漢口攻略進展을 보고는 큰下押도 不許하는 모양인데 一方歐洲情勢의 緊迫도 益益高調되여가므로 强氣가 得勢코잇다 一方取組高도 漸增하야 漢口攻略의 高潮에따라 秋高市勢가 本格的으로 開始될것을 期待코잇는 모양인데 昨日의 下押으로써 押目이 果然잇난것인지 東新百五十圓을 統制時代가 아닌때라도 [illegible]

# 今日의市勢 (大日)

[illegible]

# 期米 反落後에 更高

**前場反落** 今朝阪地는 颱風一過後의 反落으로 先限 三十五圓三十四錢인 十二丁反落을 接하고 當限은 二圓三十三錢인 八丁低로 [illegible] 先限은 三十二圓三十三錢인 七丁低로 寄付後 [illegible] 結局 [illegible] 下落止場하엿다

**後場反戾** 後場은 三十二圓二十一錢인 一丁低로 始場後 [illegible] 五節 [illegible] 强堅이엇다

# 颱風市勢一巡
## 米界不安一掃

九月一日의 颱風被害가 不少 [illegible]

# 一期戰에移行

[illegible]

# 米貨債上伸

【東京電話同盟】內地貨債는 依然無味乎凡한 保合을 繼續하고 米貨債는 [illegible]

# 阪仁俄然縮稍
## 아프르擴稍!

一百三十餘丁까지 縮少하엿든 阪仁의 開稍는 昨日颱風一過의 市勢가 展開됨에따라 當地는 又一層硬化하야 [illegible]

#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 正米 各地商情
## 京城續騰

[illegible]

## 仁川續强

[illegible]

## 木浦保合

[illegible]

## 大邱反落

[illegible]

## 釜山反弛

[illegible]

## 群山低落

[illegible]

# 市場公感

[illegible]

# 今日財界大日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九·五一六·三九六

京城 仁川 益康 金益證券

許可總督府 金銀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新產金限鑛主所在地要許可番號 金料底吹灰 金化青 引受

福 朝取證券米豆取引員 株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吉村榮左エ門商店

# 海外經濟 五日

[illegible]

# 銀行券 五日

[illegible]

#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 鰯油粕 麥粉

[illegible]

# 對外爲替

[illegible]

# 金銀價

[illegible]

# 正米

[illegible]

# 正租

[illegible]

# 雜穀

[illegible]

# 綿絲布

[illegible]

# 滿洲商況

[illegible]

# 株式

[illegible]

# 期米

[illegible]

# 京城物價大日

[illegible]

# 砂糖

[illegible]

# 生糸

[illegible]

# 人絹

[illegible]

# 棉花

[illegible]

# 綿糸

[illegible]